

CT  
201  
3/28/89

# Martin Luther와 John Calvin의 크리스찬의 자유개념 비교 연구

- M.Luther의 논문 On Christian Liberty와  
J.Calvin의 Inst. III. XX. Christian Freedom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허 순 길

이 논문을 석사학위 (M.Div)  
논문으로 제출함

1989년 2월

고신대학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신 학 과



DM00000398

최 병 규

389

# 최병규의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1989년 2월

# - 목 차 -

I. 서 론 .....	4
A. 본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 목적 .....	4
B. 본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II. 본 론 .....	6
A. 자유에 대한 개념적 이해 .....	6
1. 어원적 정의 .....	6
2. 개념 이해(제 견해) .....	7
B. 마르틴 루터와 자유개념 .....	9
1. 그의 생애와 사상 .....	9
a. 그의 생애 .....	9
b. 그의 사상 .....	12
1) 인간간 .....	12
2) 성경관 .....	13
3)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	14
2. 크리스찬의 자유(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에 대하여 .....	15
3. 「크리스찬의 자유」에 나타난 자유개념 .....	16
a. 제1부. 신앙 혹은 자유에 관한 문제—Inner Man에 대한 것 .....	17
1) 크리스찬의 본질—자유인과 봉사자 .....	17
a) 신 앙 .....	17
b) 자유와 속박 .....	18
2) 크리스찬의 두 가지 기본 명제 .....	19
3)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필수 요건 .....	19
4) 외적인 행위와 자유 .....	19
5) 하나님의 말씀과 자유 .....	20

6) 자유달성의 요소—신앙 .....	20
7) 공적을 요구하는 율법가운데서의 의의 불가능성 .....	20
8)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	21
9)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을 연결시키는 신앙 .....	22
10)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러러 보는 신앙 .....	22
11) 죄를 정복하는 신앙 .....	23
12) 첫째 계명의 성취로서의 신앙 .....	24
13) 영적인 사제로서의 그리스도 .....	25
14)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크리스찬의 자유와 권위 .....	26
15) 사제로서의 크리스찬의 존엄성 .....	27
16) 크리스찬의 만인제사장직 .....	27
17) 신앙 성립을 위한 그리스도 인식 .....	28
b. 제2부. 행동(선행)혹은 봉사에 관한 문제—External man에 관한 것 .....	29
1) 선행의 필요성 .....	29
2) 육정과 방종의 극복 .....	30
3) 의롭게 된 크리스찬으로서의 행동 .....	30
4) 신앙과 선행 .....	31
5) 귀감으로서의 그리스도 .....	32
6) 자유로운 사랑에 근거한 선행 .....	32
7) 루터의 기독교적 자유에 대한 결론 .....	33
B. 존 칼빈과 자유개념 .....	33
1. 그의 생애와 사상 .....	33
a. 그의 생애 .....	33
b. 그의 사상 .....	35
2. 기독교 강요에 포함되어 있는 크리스찬의 자유(Christian Freedom) .....	37
3.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자유개념 .....	38

a. 기독교적 자유에 관한 교리의 필요성 .....	39
1) 자유에 대하여 가르칠 필요성 .....	39
a) 칭의와 자유와의 관계 .....	39
b) 자유의 유익 .....	39
2)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	39
a) 자유의 구성 요소 중 첫째 .....	40
3) 양심의 자유는 율법의 강제 없이도 순종함 .....	40
a) 강제에 의하지 않는 자발적인 순종 .....	40
b) 은혜로 해방되어 신자들은 남은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	41
4) 자유의 효력과 성격 .....	42
5) 하나님의 은사들은 그의 뜻대로 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42
6) 자유는 남용을 금한다 .....	43
7) 약한 자의 범법문제와 기독교적 자유와의 관계 .....	44
a) 약한자를 실족케 하는 크리스찬자유와 남용에 대하여 .....	44
b) 실족에 대한 두 가지 종류(주어진 실족과 받은 실족) .....	44
8) 자유를 사용하는데 대한 조절 원리 .....	45
9) 자유와 양심을 전통과 인간정치와 관련시켜 논함 .....	45
10) 두 나라(영적인 통치와 인간적인 통치) .....	46
a) 두 가지 통치 .....	46
b) 양심은 인간제도에 어느 정도 구속되는가... .....	47
c) 양심의 정의 .....	47
11) 양심의 자유는 외적 통제가 있을 때에도 자유이다. ....	48
III. 결    론(칼빈과 루터의 사상 및 자유개념 비교) .....	49
* Abstract .....	54
* 참고 도서 목록* .....	56

# I. 서 론

## A. 본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목적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고후 3:17에는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는 자유를 누렸으나, 그러나 범죄한 이후 타락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후에는, 그 진정한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유의 개념에 있어서 수많은 정의들이 내려져 왔다. 기독교적인 혹은 비기독교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너무나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적인 자유를 정확하게 알고 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기독교 세계에서 가능한 정의들은 제외하고라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세계에서조차 이 자유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흐려져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에 자유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도출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알 때에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셨으며, 갈5:1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독교적인 자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적 자유개념을 Luther와 Calvin 두 개혁자들의 사상에서 살펴보고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자유개념을 도출해 보려 한다.

## B. 본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개혁자들인 Martin Luther와 John Calvin의 주저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그들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고찰해 보려 한다. Luther의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하여」(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와 칼빈의 「기독교적 자유」(Christian Freedom)를 중심으로 그들의 자유개념을 파악한 후 상호 비교해 보려 한다.

먼저 그들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 본 후에, 그들의 저서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으로 그들의 저서들 자체를 연구하여 비교하려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두 글들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그 외의 저서들에서 그들이 취급했던 자유에 대한 실천적인 영역이 충분히 다루어 지지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상기한 두 저서내에 자유에 대한 그들의 핵심적인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같은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본 론

### A. 자유에 대한 개념이해

#### 1. 어원적 정의

자유라는 말의 구약적 용어는 רָוּר (d<sup>o</sup>rōr)과 רָחֵב (rāhābh)이 있으며, 신약에서는 ἐλευθερία를 들 수 있다.

종의 신분이나 속박된 것의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즉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와 지는 포로나 종을 가리킬 경우에 사용될 때 רָוּר이 사용되었다(레25 : 10, 사61 : 1). 도덕적으로 얽매는 힘이 죄이며(요8 : 34), 그리고 자유는 단지 외적인 자유나 선택의 형식적인 힘을 소유하는 것 뿐만이 아닌 정신의 암흑 및 죄악된 욕정이나 의지의 노예,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에 의한 유혹으로부터의 구출에 있어서도 존재한다.<sup>1)</sup>

적극적인 면에서 그것은 옳고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함께 성결을 소유하는 것에서도 존재하는데, 그러한 자유는 오직 영혼의 증생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성결로부터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구약에서도 성결한 사람들(godly men)은 그러한 자유의 정도를 자랑할 수 있었다(시119 : 45, rahabh, "room", "breadth").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고 분명한 지식을 주고, 용서의 방법을 발견하고, 성결에 대한 최상의 동기들을 공급해주고, 죄의 권세를 폐하고 의롭게 하도록 성령을 주는 것 등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다.<sup>2)</sup>

그리고, 신약적 표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롬8 : 21, 갈2 : 4 ; 5 : 13)에 대한 것과 자유의 완전한 법(the perfect law of liberty, 약1 : 25)에 대하여라는 표현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 "자유"가 전달되는 도구는 "진리"(요8 : 32)이다.

1) James Orr(ed.), ISBE (Michigan : Eerdmans pub. Co., 1976), p. 1881.

2) Ibid. cf. Ibid. "In implanting a new life in the soul, the gospel lifts the believers out of the sphere of external law, and gives him a sense of freedom in his new life filial relation to God."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안에서의 자유를 가장하지 않아야 하고,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갈5 : 13 ; 벵전2 : 16).

그런데  $\text{קָרַר}$  는 남성으로 ① to swift flight, ② a free 혹은 abundant flow(출30 : 23) -  $\text{קָרַר-מָר}$  “myrrh which flows spontaneously”, ③ liberty, freedom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 경우에는  $\text{קָרַר} \times \text{קָרַר}$  의 형식을 취해서 “to proclaim liberty to any one”의 의미인데(사61 : 1 ; 렘34 : 8, 17), 어떤 경우에는  $\text{קָרַר}$  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sup>3)</sup>

신약적인 단어인  $\epsilon\lambda\epsilon\upsilon\theta\epsilon\rho\acute{\iota}\alpha$  는 여성으로서 ① liberty to do or to omit things having no relation to salvation(고전 10 : 29), 모세율법의 명에서 부터 (갈 2 : 4 ; 5 : 1, 13 ; 벵전 2 : 16), 그리고 정신적인 비전을 눈멀게 하는 유대인의 오류등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때 사용되어 지기도 했으며, ② fancied liberty, i. e., licence, the liberty to do as one pleases(벵후 2 : 19)이며, 그 동사형인  $\epsilon\lambda\epsilon\upsilon\theta\epsilon\rho\acute{\omega}$  는 ① to make free, set at free의 의미인데, 죄의 지배로 부터 (요8 : 32, 36), 그리고 다른 이들의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때에 사용되어진 것이라고 한다.<sup>4)</sup>

아울러 이  $\epsilon\lambda\epsilon\upsilon\theta\epsilon\rho\acute{\iota}\alpha$  를 Water Bauer는, 그것이 LXX, Philo, Josephus등도 이 단어를 freedom, liberty의 개념으로 사용했으며, Bel and Dragon에서는 그 반대개념으로  $\delta\omicron\upsilon\lambda\epsilon\acute{\iota}\alpha$  가 사용되어졌다고 한다.<sup>5)</sup>

## 2. 개념이해(제 견해)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 많다. 인간의 자유만을 논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신적인 자유를 동시에 논하기도 하고, “~으로부터의 자유”를 논하면서 동시에, “~을 위한 자유”를 말하기도 한다.

J. Gresham Machen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들의 자유의지의 작용(to the operation of thier free will)에 그들의 행동을 맡기셨으나, 그들의 행동들이 어

3) Gesenius, Gesenius Hebrew-Chaldee Lexicon to the O.T. (Baker Book House, 1979)

4) Thayer, Thayer Greek-English Lexicon to the N.T. (Baker Book Co., 1977)

5) W. F. Arndt and F. W.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1957), p. 250

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고 했다.<sup>6)</sup>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유로우시다. 그분의 인격의 특징이 자유라는 것이다.<sup>7)</sup>

그런가 하면, Rousas John Rushdoony는 자유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사전에서는 다른 이들의 지배나 제한하는 환경들로부터 제외된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간들은 조금씩은 직면해야 할 지배를 지니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지배나 제한하는 환경들로부터 제외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한다.<sup>8)</sup> 그리고 자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경적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안에 권위를 둔다고 했다.<sup>9)</sup> Franz Böckle는 “~으로부터의 자유”와 “~을 위한 자유”로 나누기도 했는데, “~로부터의 자유”에는 죄(hamartia)로부터의 자유와 율법(nomos)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죽음(thanatos)으로부터의 자유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는 “~을 위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과 죽음”이 세가지 공포에서 풀려난 (갈5: 1) 덕분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 편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 했다.<sup>10)</sup> 그리고 현대 실존철학(Heidegger, Jaspers and Sartre)은 전부가 개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정한 인간은 완전한 자유(in perfect freedom)안에 사는 것이며, 사회적 관계들의 연대에 의하여 그의 실존이 결정되어져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J. M. Spier는 말하기도 한다.<sup>11)</sup>

이렇게 볼 때 자유의 개념을 한 마디로 나타내기란 어려운 것이겠지만, 자유란 아무 구속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sup>12)</sup>

6) J. Gresham Machen, The Christian View of Man (Hazell Watson :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5), p. 38.

7) Ibid., p. 24. cf. “Indeed, He is free to an extent to which no finite person is free.”

8) Rousas John Rushdoony, Law and Liberty (Virginia : Thoburn Press, 1977), p. 12. cf. “We all have some domination to face : a husband, even a wife, parents…… and so on. and, supremely, We are all under the dominion and domination of God.”

9) Ibid., p. 33.

10) Franz Böckle, Grundbegriffe Der Moral, 성염 역, 기초윤리학 (경북 왜관 : 분도출판사, 1975), p. 52.

11) J. M. Spier,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Nutley, New Jersey : Craig press, 1976), p. 193.

12) 오병세 편, 신학사전 (서울 : 한국개혁주의 선행협회, 1981), p. 585.

## B. Martin Luther와 자유개념

### 1. 그의 생애와 사상

#### a. 그의 생애

M. Luther는 1483년 11월 10일 Saxony지방의 Eisleben에서 Hans와 Margaret Luther의 장자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광부였지만, 그는 Phillip Melancton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농부의 아들로 표현한 바 있다.<sup>13)</sup> 그는 출생한 다음날 그 당시의 관례를 따라 성·베드로 교회의 종각방 하층으로 안겨가서 Bartholomaeus Rennebecher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 날이 성 Martin의 축일이어서 그의 아버지 Hans는 아들의 이름을 Martin이라고 지었다.<sup>14)</sup> 1484년 초여름에 루터의 가정은 Eisleben을 떠나 Harz산 가까이 있는 Mansfeld로 이사했다. 그후 그의 아버지는 광부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재산을 모았으며, 그가 죽을 때에는 1250길더를 남겼다. 이렇듯 루터는 명량한 추억없이 어려운 소년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를 심하게 다루었지만, 그러나 루터는 그들의 좋은 의도를 알았다. 학교수업도 마찬가지였다. 회초리는 친절한 경고를 대신했다. 그는 하루 아침에도 열 다섯번의 꾸중을 들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러나, 그는 교리문답, 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몇몇 라틴어 및 독일어 찬송을 배웠다. 그는 Mansfeld, Magdeburg와 Eisenach에서 초등교육을 받았다. 14세때에 이미 그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름으로써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그때에 Ursula Cotta 부인은 Eisenach에서 제일 부유한 상인으로서 이 가난한 학생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18세가 되던 1501년에 그는 "Martinus Ludher ex Mansfeld"로서 Erfurt대학교에 입학했다. 그 즈음에 그의 아버지는 그를 도울 수 있어서 그는 염려 없었으며, 조금의 도서를 획득할 수 있었다.<sup>15)</sup> 그는 특별히 Scola철학 즉, 논리학, 수사학, 물리학과

13) 지원용, 루터의 사상, 신학과 교육 (서울 : 컨콜디아사, 1982), p. 32. "나는 농민의 아들이며,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나의 선조들은 모두 농민이었다"고 Melancton과의 대화에서 말하였다. cf. 이것을 Philip Schaff는 설명했다. "Luther was never ashamed of his humble origin."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I) (Michigan : Wm. B. Eerdmans pub. Co., 1984), p. 106.

14) 지원용, 말틴 루터. 생애와 사상 (서울 : 기독교서회, 1960), p. 20.

15) Philip Schaff, op. cit., pp. 108~109.

형이상학을 공부했으며, 그의 가장 좋아하던 선생님은 “Doctor Erfordiensis”라고 불리우던 Truttvetter이었다. 반면에 그는 고전들, 특히 Cicero, Vergil, Plautus 그리고 Livy와 같은 책을 연구하기에 태만하지 않았다. 그는 우아하고 세련된 정도는 아니었지만 라틴어를 명료하게 쓸 정도로 충분히 익혔다. 헬라이어 지식은 그가 Wittenberg에서 교수가 된 이후에 획득했다.<sup>16)</sup> 또한 그는 이른 시기부터 음악을 사랑했고, 노래부르며, 아주 즐겁게 류트를 연주했다. 그는 시인이었으며, 음악가였고, 또한 신학자였다. 그가 20세가 되던 해에 대학도서관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전서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으며, 그때 그는 놀랐고, 그가 교회에서 읽고 경험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1502년에 그는 문학사로서 졸업했고, 1505년에는 문학석사가 되었다. 이 학위는 현대의 독일에서의 철학박사와 대등한 정도의 것이었다.<sup>17)</sup> 1505년 여름에 그는 Erfurt에 있던 Augustinian Convent에 입원했으며 수도사가 되었다. 그는 거기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거룩한 Augustin 신부의 규율에 따라 청빈과 순결로 살것을 맹세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정녀 마리아와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 순종을 맹세했다.<sup>18)</sup> 그리고 그는 1507년에 사제로 임직받았고, 그 해 5월2일에는 그의 첫번째 미사를 집례했다.<sup>19)</sup> 그후 1507년부터 1512년까지 계속 공부하여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내가 내 영혼에 인자한 하나님을 보여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고민하였고, 그가 티끌같으며 죄에 가득한 자라고 고백했다.<sup>20)</sup> 그리고 1513~1517 어간에 걸쳐서 시편강해(1513), 로마서 강해(1515), 갈라디아서(1516~1517)등을 연구해 갔으며, 롬1:17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에서 이신득의 (Justification through faith)의 교리를 발견했다.<sup>21)</sup> 이러한 그의 사상은 Anselm의 글 Cur Deus Homo를 읽으면서 더욱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Bernard of Clairvaux, Theologia Germanica 그리고 Tauler의 설

16) Ibid.

17) Ibid.

18) Ibid., p. 115.

19) 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 2) Reformation to the present (NY, London, SF. : Harper & Row, 1975), p. 705.

20) Roland H. Bainton, Here I Stand : A Life of Martin Luther (Nashville : Abingdon press, 1978), pp. 27f.

21) Latourette, op. cit., p. 706.

교등을 통하여 영향을 입게 되었다.<sup>22)</sup> 그후 그는 1517년 10월 31일 All Soul's Day 전야에 면죄부에 대한 비판을 가했으며, 95Theses를 낭독했다. 1520년 교황에 의하여 출교당했으며, 드디어 1521년 Worms에서 황제 Charles V에 의하여 법의 보호밖에 있는 자(outlawed)가 되어버렸다.<sup>23)</sup> 그후에 1519년에는 Leipzig논쟁이 있었으며, Miltitz와 Eck등은 그의 강경한 적수이었고, 그러한 가운데 그는 종교개혁기의 3대 논문인 그의 주저,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 Von des christlichen Standes Besserung)과 교회의 바벨론 포로(De Captivitate Babylonica Ecclesiae Praeludium), 그리고 크리스찬의 자유에 대하여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을 펴 내었다. 과연 루터는 종교개혁기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공헌한 사람이었다고 한 O'connell의 말이 과연이 아니다.<sup>24)</sup>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몇년간의 지병끝에 Eisleben에서 죽었다. 그는 배운 사람이었고 공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코 시골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결코 궤변자가 아니었다.<sup>26)</sup> 그가 비록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신학자요 설교가이지 아카데미한 것은 아니라고 E. G. Rupp는 말하고 있지만,

22) Ibid., p. 707.

23) Dowley, Eerdmans' Handbood to thr History of Christianity (Grand Rapids, Michigan : Wm. B. Eerdmans pub. Co., 1977), pp.306f. (이하 Eerdmans' Hand book으로 표기). cf. 사실 1517. 10. 31의 95개조는 본래 Luther가 이것을 제시할 때에는 어떤 개혁운동을 일으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대학내에 있는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토의하기 위하여 공개한데 불과했다.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p. 72 참조).

24) Marvin O'connell, The Counter Reformation (NY : Harper & Row pub. House, 1974), p. 27.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M. Luther Contributed more than anyone else to this massive change of heart whatever his gaucheries and inconsistencies, however much his vulgarity and philosophical nihilism outraged fastidious people like Erasmus, Luther's basic insight proved to be immesely persuasive."라 했으며, Owen Chadwick도 The Reformation, pp. 73~74.에서, "He could be coarse, bitter, obstinate, obstinate, vulgar..... But his hates were not personal, his contentions were not for himself....."라고 하면서 Luther의 의도에 대하여 변호한 바 있다.

26) Owen Chadwick, Ibid.

Ernst Gorden Rupp, Luther's progress to the Diet of Worms (Chicago : Wilcox and Follert Co., 1951), p. 104.에서 그는 Luther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잘 설명한 바 있다. "For Döllinger, in his earlier writings, Luther was a criminal ; for Denifle, a man in whom nothing godly can be found ; for Grisar, a psychopath ; bur for Lortz, a tragic individual, caught in almost in soluble interior and exterior difficulties and living by faith."

27) 그러나 그는 개혁운동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를 지녔던 사람이었다.<sup>28)</sup>

#### b. 그의 사상

루터는 신학자로서 교회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사상을 여기에서는 인간관, 성경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문제에만 국한시켜서 언급하려한다. 그 밖의 사상들은 “크리스찬의 자유”를 논할 때에 언급하기로 한다.

##### 1) 인간관

먼저, 종교개혁기에 접어들면서 “사람”의 정체가 재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9) 루터는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매우 잘 취급했다. 사람은 의롭거나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동시에 어떤 인간 공동체의 한 예속자에 불과한 소망없는 존재도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인간을 통하여 인간을 교육시키신다. Ernst Lichtenstein의 말과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기관과 도구로서의 인간을 통해서만 구체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활동하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루터의 주요 관심사는 Volle hominum esse hominum 즉 인간이 속할 올바른 곳에 인간을 속하게 하는 일이라고<sup>30)</sup>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을, 있어야할 적절한 영역에 있게 한다는 이 문제는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으며, 또한 전 인류의 문제라고<sup>31)</sup>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루터는 이 중대한 문제를 결코 잊지 않았다. Heinrich Bornkamm의 말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적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난 인간은 전적으로 징벌과 심판아래 서게 된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루터는 말하였다.

인간의 원상태(original State)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Homo est Creatura Dei)라는 루터의 명제를 생각하게 된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28) N. S. Tiernagel, The Reformation Era (St. Louis, Missouri : Concordia pub. House, n.d.), p. 40.

29) 지원용, 루터의 사상, P. 92.

30) Ibid.

31) Ibid.

32) Ibid., p. 96. cf. Luther는 창1 : 26~의 אֱלֹהִים과 אֱדָמָה를 하나의 것으로 본것이 사실이다.

형상(Imago Dei)대로 지음을 받았다.<sup>32)</sup> 그러나, 이 형상은 죄있는 인간에 의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없으며, 또한 성경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긍정적인 재료에 근거하여 완전히 묘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루터는 Imago Dei의 연구는 적극적으로가 아니고 다만 소극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 주었다. “Solum privative et non positive ea possumus intelligere.”<sup>33)</sup>

다음으로 인간의 타락한 상태(Homo peccator)의 문제인데, 인간은 타락하였으며,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의 높은 지위에서 타락했을 때에는 Imago Dei를 상실하고 말았다. 교만가운데서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랐으며 하나님처럼 되기를 갈망했다.<sup>34)</sup> 인간의 근본 본성은 죄에 의하여 부패되어 있으며, 영원히 죽음가운데 던져져 있다. 그리고 사람이 죄로 인하여 그의 모든 영광과 쾌락과 기쁨을 상실하였으며, 죄로 인하여 본래의 행복을 상실하였다고 보았다.<sup>35)</sup>

## 2) 그의 성경관

루터의 신학과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원한다. 그의 모든 종교적인 경험과 신학적 발전도 말씀에서 나왔으며, 말씀과 다른 것은 모두 제거되었다고 Philip Watson이 말한 것과 같이<sup>36)</sup> 그리고 루터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말씀이란 복음과 사죄에 관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운반자라고 하였다.<sup>37)</sup> 그리고 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로서의 성경은 대적자들과 행한 루터의 논쟁 및 이에 대한 여러가지 작품과 설교들 가운데 강조되어 있으며,<sup>38)</sup> 루터에 있어서 성경만이 모든 권위중의 권위인 것이다.<sup>39)</sup> 종교개혁은 Sola Scriptura 사상에 의하여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말씀, 다만 말씀

33) Ibid., p. 97.

34) Ibid., p. 106.

35) Ibid., pp. 109~110.

36) Philip S. Watson, Let God Be God (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1949), pp. 149~189.

37) Ibid., pp. 149~152.

38) 지원용, 루터의 사상, p. 126.

39) Ibid., p. 136. cf. Paul Althaus, The Ethics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p. 127. “For Luther, God’s Word is the basis of all authority and all obedience in the orders of this life. However, God’s word also set limits for both authority and obedience.”

40) 지원용, 루터의 사상, p. 122.

말이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이다.”(Das Wort, und das Wort ist das Mittel der Gnade Gottes)라고 한 그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그의 활동 및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sup>40)</sup> 그리고 루터는 성경에 매이어 있었으며, 그의 자의적인 사변에 기초하여 가르치지도 않았으며, 정치적인 권위들이 그로 하여금 말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형태로도 말하지 않았다.<sup>41)</sup> 아울러 그는 1535년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말씀을 은총의 매개자(Vehiculum gratiae)라고 한 바 있다.<sup>42)</sup>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시 하나님의 집이 있으며(Gottes Reich ist das Reich des Lebens),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바른 확실한 신인식(rechte gewisse erkenntniss)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sup>43)</sup>

그러므로 Sola Scriptura 사상은 Sola fide와 Sola Gratia와 함께 종교개혁의 대원리이며, 루터는 이 사상에서 그의 신학의 토대를 세운 것이다.

### 3)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루터의 신학은 시종일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44)</sup> 루터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안에 계시된 전능하신 사랑과 의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은총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유일하신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루터신학의 총체라고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sup>45)</sup>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숨겨진 하나님, 즉 Deus absconditus을 알게 되는 것이며, 루터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Versoehnungswerke Jesu Christi)위에 전고하게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기에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Theologia Crucis)이라고 하는 것이다.<sup>46)</sup>

그는 또한 변증법적인 탐구와 증거에 따라 속죄(Satisfactio)의 교리를 제창한 Cur

41) Paul Althaus, op. cit., p. 44.

42) 지원용, op. cit., p. 143.

43) Ibid., p. 147.

44) Ibid., p. 155.

45) Ibid., p. 156.

46) Ibid., pp. 156~157.

47) Ibid., p. 165.



Deus Homo를 저술했던 Anselm of Canterbury의 사상에 공감을 가지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 실로 지상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본 것이다.<sup>47)</sup>

## 2. 「크리스찬의 자유」(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에 대하여

이것은 1520년 1월에 교황 Leo X에게 보내는 편지에 첨가된 글인데, 루터는 이것을 후에 독일어로 자유롭게 번역하여 그의 친구인 Mühlfordt시장에게 보냈다. 이 논문은 30개 조항으로 된 작은 글이지만, 그 내용으로는 루터의 저서 가운데서 진주와 같은 귀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의 논문 「크리스찬의 자유」가 가지는 성격상의 문제를 살펴 보려 한다. E. G. Rupp는 이 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것은 the writings of Mercy rather than of wrath라고 했다. Rupp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루터의 또 다른 두 논문들은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의 영혼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루터는 이것을 교회의 연대성내에서 생각했다고 한다.<sup>48)</sup>

루터에게 있어서 자유와 Coram Deo의 정의는 하나님의 약속들, 예를들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즉 Verbum Dei를 믿는 것에 의하여 설리되고 보장되는데, 그래서 크리스찬의 양심은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자유롭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sup>49)</sup> Roland H. Bainton도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 대하여 그의 감사를 표현하고 그의 이웃에게 그의 사랑을 주는 것이라 했다.<sup>50)</sup> James Atkinson도 크리스찬의 생애는 신앙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은 그의 동료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해짐으로 자유롭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의

48) E. G. Rupp, op. cit., p.

49) H. A. Oberman, Luther and the Dawn of the Modern Era (Leiden : E. J. Brill, 1974), pp. 48~49.

50) Roland H. Bainton,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ston : Beacon press), p. 52.

51) James Atkinson, The Great Light, p. 61. 그는 계속해서, "A Christian lives in Christ and his neighbour by love."인 것을 설명한다.

동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안에서 실천되어 진다고 함으로써,<sup>52)</sup> 칭의와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연결해서 설명한다. E. G. Schwiebert는 이 크리스찬의 자유를 설명하는데, 앞서의 두 논문은 revolutionary nature가 있는 반면에, 이 셋째 논문은 고요하면서도 화해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았다.<sup>53)</sup> Latourette도 비슷하게 말하는데, “A Christian man is the most free lord of all, and subeject to everyone”을 설명하면서, 루터가 이것으로써 의미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선행에 의해서 칭의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는 율법의 속박에서 부터, 그리고 행위에 의하여 그의 구원을 얻으려고 촉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한다.<sup>54)</sup> 그리고 김의환 교수 역시 그의 셋째 논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된 사실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스스로 이웃을 섬기기 때문에 “자유로운 종”이라는 아이러니컬한 사실을 지적하였다고 한다.<sup>54)</sup>

이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루터의 논문은 아름다운 것이며, 루터의 저작들중에 하나의 진주라고 P. Schaff가 지적한 것처럼,<sup>55)</sup> 그의 신학적 사상이 총집약되어 있는 것이며, 크리스찬들에게 참다운 자유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 논문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 3. 「크리스찬의 자유」에 나타난 자유개념

그의 이 논문에 대하여 H. G. Haile은 말하기를,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즉 the inner man과 그러면서도 이곳에 체류하는 동안에 이 세상의 권세에 전적으로 속해있는 외적인 인간(the external man)의 차이를

52) E. G. Schwiebert, *The Reformation from a New perspective* (st. Louis, Missouri : Concordia pub. House, 1950), p. 478. cf. 그는 p. 480.에서 Luther가 Tauler연구에 빠졌던 것과 German mysticism이 그의 논문에 나타난다고 한다. 즉, 크리스찬은 신앙을 통해서 신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죄, 사망, 그리고 정죄는 더 이상 그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즐기게 된다고 한다.

53) Latourette, op. cit., p. 714.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Here again are reflected the agony and seeming futility of Luther’s struggle to win justification before God by the methods prescribed by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monastic discipline.”

54)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 성광문화사, 1982), p. 274.

55) Philp Schaff, op. cit., p. 221.

56) H. G. Haile, *Luther*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 press, 1980), p. 93.

뚜렷이 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sup>56)</sup>

사실 루터는 번호를 달아 1, 2부로 나눈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뚜렷하게 두 부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1부는 신앙 혹은 자유에 관한 문제, 즉 inner man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제2부는 행동(선행) 혹은 봉사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즉 external man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a. 제1부. 신앙 혹은 자유에 관한 문제—inner man에 관한 것.

1) 크리스찬의 본질—자유인과 봉사자

이 부분에서 루터는 신앙(Faith)의 문제와 자유와 속박(Liberty and bondage)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a) 신앙(Faith)

그는 먼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신앙을 쉬운 것으로 생각했으며,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덕행(virtue)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신앙을 체험하지 못했고, 또한 결코 신앙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위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sup>57)</sup> 만일 시련(trials)이 그를 억압할 때 신앙이 주는 용기를 맛보지 못했다면, 신앙에 대해서 바로 쓰거나 혹은 신앙에 대해 기록된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루터는 신앙을 체험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데, Heinrich Bornkamm은 루터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말하기를, 루터의 신앙은 무조건적 신앙, 실재를 믿는 신앙, 용감한 신앙, 신앙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부터 나오는 생명이라고까지 언급한

57) Luther, Treatise on Christian Liberty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4), p. 321. (이하

58) CL로 표기). 여기에서 소제목에 나눔에 있어서 지원용교수의 역본을 참고한다.

Heinrich Bornkamm, Luther's World of Thought (st. Louis, Missouri : Concordia pub. House, 1965), pp. 76~90.에서 루터 자신의 신앙을 피력하고 있다. I. Luther's faith is an unconditional faith (p. 76.) II. Luther's faith was a belief in reality, a belief that accepted life's reality at its face value and did not lend itself to any illusions (p. 80.) III. Luther's faith is a daring faith ; it looks to Christ (p. 87.) IV. Faith is life that proceeds from the strength of christ..... Thus faith flowers in good works (p. 90.)이라고 했음.

적이 있다.<sup>58)</sup>

루터는, 계속하기를, 그러나, 신앙의 맛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그것에 관해서 충분히 기록하거나 말하거나 명상하거나 심리할 수 없을 것인데, 요4:14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산 샘물이라고 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신앙의 결론을 언급한다. 즉, “나로서는 비록 자랑할만한 신앙의 부요함을 있지 않고, 나의 값진 것이 얼마나 적은가도 알고 있으며, 또한 내가 비록 여러가지 큰 시험으로부터 습격을 받기까지 하였지만, 나는 얇은 신앙에라도 도달하였기를 바란다.”<sup>59)</sup>

b) 자유와 속박(Liberty and bondage) - 두 가지 명제

그는 여기에서 크리스찬의 주와 종된 모습을 설명하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사실 그는 그들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정신의 자유와 속박에 대한 두 가지 명제를 설명한다. 즉, 크리스찬은 완전히 자유로운 만물의 주(主: lord)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크리스찬은 완전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종의 의무를 지니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두 명제는 상호 모순이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루터는 이 두가지 명제가 서로 잘 조화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목적에 훌륭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둘 다 사도 바울의 진술인데, 고전9:19에서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겠으나 스스로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한 말씀과 롬13:8에서의 “피차 사랑의 빛의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한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면서, 사랑은 그 본질상 언제든지 섬기도록

---

59) CL. p. 312. cf. 그러나, 사실 Luther에게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칭의의 교리는 그의 윤리관을 잘 나타내어 준다. cf. Paul Althaus, *The Ethics of Martin Luther*, p. 3. “Luther’s Ethics is determined in its entirety,……by the heart and center of his theology, namely, by the justification of the sinner through the grace that is shown in Jesus Christ and received through faith alone.” 그리고, H. G. Haile도 Luther, op. cit., p. 209.에서 말하기를, “Luther began with the creed, singling out faith in Christ as the first and chief article”라고 한다.

60) Ibid. cf. 지원용, 루터의 사상, p. 113. “그리스도안에서 구속받은 크리스찬은 역설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는 자유신이며, 동시에 종이다.” Paul Althaus도, op. cit., p. 36.에서 “God is a greater Lord and has many kinds of servants.”라고 했다.

되어 있으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하다.<sup>60)</sup> 이와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주이셨으나,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아래 나셨다(갈4:4).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종의 형상을 입은(빌2:6~7) 자유자이시며, 동시에 종이셨던 것이라고 한다.<sup>61)</sup>

## 2) 크리스찬의 두 가지 기본명제

여기에서 그는 더 명백한 주제로부터 시작하는데, 사람은 영적이며 육체적인 이중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육이라고 표시하는 육체적인 본성에 의하면, 현세적, 외적 혹은 옛사람이라고 불리우며,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표시하는 영적인 본성에 의하면, 그는 영적, 내적, 혹은 새사람이라고 불리운다.<sup>62)</sup> 이러한 다양성때문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배치되는 입장에 있게 된다고 한다.<sup>63)</sup>

## 3)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필수요건

여기에서는 The inward man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먼저, 어떻게 의롭고 자유롭고 경건한 크리스찬 곧 영적이고 새롭고 내적인 사람이 그와 같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는데, 외적인 것이 크리스찬의 자유를 만들어 낸다든지, 불의나 노예적인 신분을 만들어 내는데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못한다. 비록 육체가 사제의 거룩한 옷으로 장식되고 성소에 거하며 거룩한 직책에 종사하며 금식하고, 육체로서 또한 육체 안에서 할 수 있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영혼을 돕지 못한다<sup>63)</sup>고 한다.

## 4) 외적인 행위와 자유

여기에서는 The Word of God을 설명하면서 외적인 행위와 자유를 설명한다. 크리스찬의 생활과 의와 자유를 위하여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말씀이며, 그것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다고 한

61) Ibid., p. 313. cf. 지원용, 루터의 사상, p. 164. “그리고 그-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였고, 오히려 종이되는 길을 택하셨다”고 함.

62) CL. p. 313. cf. 그는 여기에서 고후4:16의 “결사 사람은 후회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는 말씀을 설명한다.

63) Ibid. 여기에서도 갈5: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것을 설명한다.

63) Ibid. 왜냐하면, 영혼의 의와 자유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 밖의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행동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영혼을 위하여 전혀 도움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sup>64)</sup>

#### 5) 하나님의 말씀과 자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육이 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루터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The Gospel)의 성격에서 설명한다.<sup>65)</sup>

#### 6) 자유달성의 요소-신앙

여기에서는 Justification through Faith를 논한다. 이 신앙은 롬10:10의 말씀, 즉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오직 내적인 사람 안에서만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신앙만이 의롭게 하는 것이므로 내적인 사람은 전혀 어떤 외적인 긍정이나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자유롭게 되거나 혹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이신득의(Justification through faith)의 교리를 확고히 한다.<sup>66)</sup>

#### 7) 공적을 요구하는 율법가운데서의 의의 불가능성

여기에서 루터는 Faith & Works, Commands reveal weakness에 대해서 논한다.

---

64) Ibid., p. 314. cf. J. M. Porter, Luther: Selected political writings, p. 4. “according to Luther, true christianity can be restored only if the authority of the Word of God as found in Scripture alone replaces……”

65) Ibid., p. 315. cf. Luther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말씀을 Vehiculum gratiae라고 한 적이 있다. (지원용, 루터의 사상, op. cit., p. 143). Paul Althaus도 The Ethics of M. Luther, p. 12에서 Luther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권위에 있어서 근본이라고 했으며, p. 60.에서는, “for the gospel does not farce people to do everything—and for this reason it does not bring everyone faith……”라 했다.

66) Ibid., p. 316. Paul Althaus도 The Ethics에서, “Justification by faith determines Christian Ethics because, for the Christian, justification is both the presupposition and source of the Ethical life (p. 3), The Christian’s justifying faith and his certainty that he is saved give him very great freedom of action.”이라고 했다. cf.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지만, Luther는 크리스찬의 Simul justuset peccator, 즉 Righteous and sinner at the same time을 강조했던 것을 Paul Althaus는 pp. 19~20.에서 말하고 있다.

성경가운데는 인간의 행위와 의식과 율법이 많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신앙만이 인간을 의롭게 하며 공적없이 그렇게 크고 유익한 보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라고 묻게 된다면, Luth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고 한다. 즉 공적없이 믿음만이 의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며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한다.<sup>67)</sup>

다음으로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경자체가 계명과 약속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비록 계명이 선한 것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가르쳐진 것들은 그것이 가르쳐진 직후부터 바로 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명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보여 주기는 하나, 이것을 행할 힘은 주지 않기 때문이다. 계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을 알도록 가르치려는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사람은 선을 행하기 위한 그 자신의 무력을 알게 되고, 그 자신의 능력에 따르다가는 절망에 빠질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계명을 구약이라 부르며 또한 구약을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sup>68)</sup>

#### 8)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렇게 하여 만일 사람이 계명을 통하여 그의 무력함을 인식하게 되고, 어떻게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심하게 될 때에 그는 참으로 겸비하게 되며, 자신의 판단으로서도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자신속에서 그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율법은 일점일획이라도 빼 놓지 않고 완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인간은 아무 소망도 없이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성경의 둘째 부분이 우리를 돕게 되는데, 곧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다.<sup>69)</sup>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주며, 또한 계명자체와 계명의 완수가

67) Ibid., pp. 316~317. cf. Roland H. Bainton은 op. cit., p. 50에서 Luther가 신앙을 두 레벨로 나누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There is faith awake and faith asleep." 한편, Latourette는 op. cit., p. 715에서, "It is not from works that we are set free by the faith of christ, but from foolish presuming to seek justification through works..."라고 했다.

68) Ibid., p. 317. cf.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 Luther, p. 255.에서 율법의 신학적 혹은 영적인 의미와 기능을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The Law was originally an expression of God's love; now it is the tool of his wrath. The law once made man rejoice; now it has become a terrible thing for him."이라고 한 바 있다.

69) Ibid. cf.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 Luther, p. 256. "The Law is not God's entire word. The Gospel stands alongside it."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율법이 규정한 것을 완수한다. 약속만이 율법을 주관하며 완수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에 속하며, 참으로 이것이 새 약속이라고 한다.<sup>70)</sup>

#### 9)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신앙

여기에서 루터는 신앙이 의롭게 하는(Faith justifies)것을 논한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거룩하고, 참되고, 의롭고, 자유롭고, 또한 선이 가득 찬 평화로운 말씀인데, 그러므로 굳은 신앙으로 이 말씀에 매어 달리는 영혼은 이 말씀과 밀접하게 결합되고, 완전히 동화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충분히 잠겨지고 도취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해서 크리스찬은 신앙가운데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며 그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아무 선행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만일 그가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는 율법에서도 해방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sup>71)</sup>

#### 10)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러러 보는 신앙

여기에서 Luther는 Faith fulfills the Commands을 논하는데, 그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러러 보는 신앙을 신앙의 첫째 능력이라고 하면서 둘째 능력을 검토한다.

우리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신앙으로 그에게 당연히 들려야 할 큰 존경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우리의 신앙때문에 우리를 진실하고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그 큰 명예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 여기서 그는 신앙이란

70) Ibid., p. 318. cf. Paul Althaus는 The Theology., p. 256.에서 율법의 기능을 잘 설명하면서, The Gospel contains God's promise in Christ. It proclaims that all the law's demands have been met in Jesus Christ, that is, it preaches the forgiveness of sins"라고 했고, Charles S. Anderson도 The Reformation...then & now, p. 37.에서, "I believe that by my own reason or strength I cannot believe in Jesus Christ, my Lord, or come to him. But the Holy Spirit has called me through the Gospel"이라는 Luther의 말을 인용, 설명했다.

71) Ibid., p. 319.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아무 선행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사상의 핵심이다. Paul Althaus도 The Theologh., p. 226에서, Luther는 justificare ("to justify")와 justificatio라는 용어를 한 가지 의미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첫째 의미는 justum reputare or computare의 의미,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판단을 말하며, 다른 한 용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비록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의롭게 선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둘 다 법정적이라고 (Both possibilities are "forensic") 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에게 드림으로 진리와 의를 이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의를 칭찬하신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것이 사실이고, 당연하며, 그를 그렇다고 생각하며 고백하는 것 자체가 역시 진실하고 공의로운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sup>72)</sup>

여기서 그는 삼상2 : 30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롬4 : 3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가장 완전하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고 말하며, 또한 만일 우리가 믿는다면 동일한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의로 여김을 받게할 것이라고 말한다.<sup>73)</sup>

#### 11) 죄를 정복하는 신앙

여기에서 그는 Faith unites with Christ를 논하면서 그 신앙은 죄를 정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신부가 그의 신랑과 결합되는 것과 같이, 영혼과 그리스도를 결합시키는 것을 그는 무엇보다도 비길 바가 없는 신앙의 셋째 이득이라고 하는데, 사도가 가르치는 것과 같이 이러한 비밀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영혼은 한 몸이 되며(엡5 : 31~32), 그리고 만일 그들이 한 몸이고, 그들사이에 참된 결혼 곧 모든 결혼가운데서 가장 완전한 결혼이 있다면 그들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동일하게 공동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그는, 인간의 결혼은 이 참된 결혼의 빈약한 한 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믿는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나 그 자신의 것처럼, 그리고 그 영혼이 가진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시는 것처럼

72) Ibid., p. 320.

73) Ibid. cf. Charles S. Anderson, op. cit., p. 39.에서 칭의의 또 다른 면을 소개한다고 볼 수 있는데, “Luther’s picture of justification includes more than the law court and counting house (imputation, reckoning). He also emphasizes the reality of new life in which the believer has a living relationship with Christ”라고 하면서, Luther의 칭의 개념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새생명의 실체의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sup>74)</sup>

그리스도는 한 인격(person)안에 있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그는 죄를 지으시지도 않았고, 죽으시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는 죄를 짓거나 죽거나 정죄 받으실 수도 없다. 그의 의와 생명과 구원은 정복할 수 없고, 영원하며 전능하시다. 여기서 Luther는 신앙을 결혼반지로 비유하면서, 그는 그의 신부의 것인 죄와 죽음과 지옥의 고통에 동참하신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마치 그것들이 자신의 것처럼 행하시며, 또한 마치 자신이 죄를 지으신 것처럼 행하신다. 여기에서 Luther는 강조하기를, 이와 같이 믿는 영혼은 그의 신앙을 담보로 하여, 그의 신랑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와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sup>76)</sup>

아울러, 그는 호세아 2 : 19~20의 말씀처럼, 신앙과 불변의 사랑과 그리고 자비와 의와 정의로 그 여자와 결혼하신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의 남편인 그리스도안에 있는 의를 가진다. 이 의를 자신의 것으로 자랑할 수 있고, 죽음과 지옥에 대항하여 자신을 자기의 죄결에 놓을 수 있으며, 또한 “비록 나는 죄를 지었으나, 내가 믿는 나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부가 아가서 2 : 16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이며 나는 그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sup>77)</sup>

## 12) 첫째 계명의 성취로서의 신앙

여기에서는 Faith the fulfilment of the Law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많은 것이 신앙에 기인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는데, 곧 신앙만이 율법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너는 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첫째 계명이 오직 신앙에 의하여

74) Ibid. 여기에서 그는 이것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총과 생명과 구원이 충분한 것과, 영혼은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신앙을 그들 사이에 끼워 넣고 설명한다.

76) Ibid. 여기에서 Luther는 이렇게 때문에 그는 “물로 씻고, 생명의 말씀 곧 생명과 의와 구원에 대한 신앙으로 그 여자를 깨끗하게 하려 하여, 티나 주름이 없는”이라고 하는 엡5 : 26~27의 말씀처럼 신부를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

77) Ibid., p. 322.

78) Ibid. 그는 여기에서, 이것은 선행에 의하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마음에 지닌 신앙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듭 Justification through faith를 강조하고 있다.

완수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비록 우리가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선 행의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 할찌라도, 사람이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첫째 계명을 완수하게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야 할 진실과 모든 선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sup>79)</sup> 공적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그가 진실하다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앙만이 크리스찬의 의와 모든 계명의 완수라는 결론이 서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계명을 완수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계명을 완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기때문인 것이다.

여기에서 Luther는 신앙과 공적과의 관계를 언급하는데, 만일 신앙이 있다면 공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질 수는 있다고 하게 됨으로써, 공적은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자연스런 결과인 것을 말하고 있다.<sup>79)</sup>

그러나, 인간의 공적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루터는 무슨 공적과 어떤 종류의 선이 행해지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공적을 행하도록 만드는 이가 누구인가를 묻는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의의 근원과 본질인 신앙에 의하고 위협한 교훈이라고 한다.<sup>80)</sup>

#### B) 영적인 사제로서의 그리스도

여기에서 Luther는 O. T. Types를 가지고 설명한다. 우리의 inward man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그 은총을 한층 더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든 처음난 수컷들을 자기자신에게 바치게 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 장자권은 이중의 명예인

79) Ibid. Paul Althaus는 The Ethics, p. 50에서 신앙과 공적의 두가지 양상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Words flow out of faith, and a faith in turn is strengthened by works. Thus faith

80) goes out into works and through works comes back to itself again"이라고 함.

Ibid. 여기에서, 그는 계명이란 어떤 공적이 행해질 수 있기전에 완수되어야하며, 또한 공적은 계명의 완수에서 나오는 것(롬13: 10)이라고 한다.

81) Ibid., p. 323. cf. Luther는 Priesthood & all believers에 대하여 논하면서, 사제의 중세적인 성격을 즉, as dispenser of the sacraments 같은 것을 배제해 버렸으며, 그래서 "Since all men have access to God, there should no superiors and inferiors within an assigned religious hierarchy....."라고 했다. (J. M. Porter, Luther : Selected political writings, p. 6.)

제사장직과 왕위의 명예를 내포하기 때문에 높이 평가 되었다고 한다. 말형은 모든 다른 형제들에게 대하여 제사장과 균주격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정녀 마리아의 참되고 유일한 맏아들이시고 진실한 왕과 제사장이었으며, 그의 나라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므로 (요18:36) 육신과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는데, 그는 천상적이고 영적인 것을 곧 의, 진리, 지혜, 평화와 구원과 같은 것들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바치신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며(intercede for us),아울러 내적으로 그의 성령의 산 교훈을 통하여 우리들 가르치시기도 한다.<sup>81)</sup>

#### 14) 그리스도안에서 가지는 크리스찬의 자유와 권위

여기에서는 The Kingship of the Christian을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장자권으로 이 두 가지 특권을 얻으신 것과 같이, 그는 아내가 남편에게 속한 것을 무엇이나 다 소유한다는 상술한 결혼의 법칙에 따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부여하시며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분담하신다.<sup>82)</sup> 그는 계속해서 제사장직과 왕위의 본질을 설명한다. 먼저 왕위에 대해 설명하는데, 모든 크리스찬은 신앙으로 모든 만물보다 더 높혀졌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빠짐없이 만물의 주가 되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해를 입힐 수 없는데, 만물은 그에게 예속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구원을 얻기위하여 그를 섬기지 아니하면 안된다.<sup>83)</sup> 믿음만이 구원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신앙자체의 자유의 능력과 주권을 행사하는 믿음외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크리스찬의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자유라고 한다.<sup>84)</sup>

82) Ibid. 여기에서 Luther는 벨전2:9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하심이니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한다.

83) 사실 이 부분은 그의 CL. 초두에서 말한 명제이다. (CL., p. 312) “A Christian man is a perfectly free lord of all, subject to none, A Christian man is a perfectly dutiful servant of all, subject to all.”

84) Ibid., p. 324. cf. Charles S. Anderson, op. cit., p. 39. “The Christian is not who has no sin, or feels no sin, but he to whom God does not account his sin because of his faith in Christ”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85) Ibid., p. 325. cf. J. M. Porter, op. cit., p. 6. “The medieval priest is transformed in Luther’s thought to an office holder who explains the word... with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doctrine Luther has substituted a radically egalitarian conception of the church for the medieval church with its gradations of authority and functions.”라고 하면서 Luther의 사제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다.

### 15) 사제로서의 크리스찬의 존엄성

여기에서 Luther는 The Priesthood of the christian을 논한다. 우리는 왕중의 왕이며 가장 자유로운 자들일뿐만 아니라, 역시 영원히 제사장들이기도 한데 이것은 왕이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일이라고 한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앞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일들을 서로 가르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직무이며, 이 직무는 불신자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를 믿기만하면 그의 형제와 공동상속인(Co-heirs)과 동료왕(fellow-kings)이 되게 할 뿐아니라 그의 동료제사장(fellow-priests)이 될 수도 있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현전에 담대히 나와(히10 : 19~22)아바 아버지(Abba, Father)라고 부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제사장들의 외적이고 가견적인 업무에서 행해지고 예시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sup>85)</sup> 사람은 확실히 어떤 공적으로가 아니라 다만 신앙으로써 이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크리스찬은 만물에서 해방을 받고 만물에 대하여 자유로우므로 자기를 의롭게 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 공적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만이 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만일 그가 어떤 선행으로 의롭게 되고 자유롭게되며 구원을 받고 크리스찬이 된다고 생각하리만큼 어리석게 된다면, 그는 신앙과 신앙에 따르는 이득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sup>86)</sup>

### 16) 크리스찬의 만인제사장직

여기에서 루터는 Distinctions among Christian을 논하는데, 크리스찬의 만인제사장직을 설명한다. 만일 교회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지금 제사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Luther는 대답

86) Ibid. 그러한 어리석음을 Luther는 Aesop's Fables에 나오는, 한 입에 고기를 물고 물속에 비친 고기를 갖기 위해서 입을 벌리다가 자기입에 있던 고기까지 놓쳐 버린 어리석은 개의 비유를 든다.

87) Ibid., p. 326. cf.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Luther는 중세기적인 의미에서의 사제적인 특징을 배제해 버렸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직책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제에 대하여, "He is not the carrier of a special power which make him a necessary mediation for salvation"이라고 J. M Porter는 op. cit., p. 6.에서 말한 바 있다.

하기를, 곧 사제, 수도사, 영적인 것 및 성직자란 말들이 그릇된 용법에 따라 모든 일반 크리스찬들로부터 현재「성직자들」이라 불리우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sup>87)</sup>

Luther는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성경은 교황, 주교및 군주라고 당당하게 지금 불리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믿음과 크리스찬의 자유를 가르쳐야할 사람에게 섬기는 자들, 종들, 청지기들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는 하지만 이런 칭호를 특별히 구별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는 여기에서 또 다른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비록 우리가 다같이 제사장들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다 공적으로 봉사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다고 한다.<sup>88)</sup>

#### 17) 신앙성립을 위한 그리스도 인식

여기에서의 문제는 How christ is to be preached의 문제인데, 루터는 마치 그리스도의 업적과 삶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처세를 위하여 충족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설교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크리스찬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여 그리스도를 동정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격분하도록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교하고 해석하는 것 같은 어리석고 나약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sup>89)</sup> 오히려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수립되

88) Ibid. 여기에서 루터는 바울의 고전4:1에 말한 바, 즉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해석은 안된다고 한다.

89) Ibid., p. 사실 이런 경우는 당시의 훌륭한 설교자로 여겨지는 사람들 가운데도 유행되고 있다고, Luther는 지적한다. cf. Paul Althaus, The Ethics, p.150.에서, “Luther also says the office of preaching does not call politicians to obey the gospel, the sermon on the Mount, or a christian law but rather the secular law”라고 하면서 설교에 대한 루터의 입장을 시사한다.

90) Ibid., 이같이 Luther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한 것이다. (지원용, 루터의 사상, p.155). Tischreden가운데서 Luther는 기독교인에 대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취급하였다.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본성, 굴욕과 높임, 그의 오신 목적, 그의 업적, 율법과 복음 등등. cf. 지원용, 루터의 사상, p.163에서는 Erlanger Ausgabe 11, 289를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늘의 새로운 설교(Neue Predigt Vom Himmel)라고 했다.

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될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며 또한 그에게 대해서 말해진 것과 그의 이름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 가운데서 효과있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설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90)</sup>

이러한 신앙의 우리안에서 생기고 보존되는 것은 왜 그리스도가 오셨고, 무엇을 그가 가져 오셨고, 주셨으며, 또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교함으로 되어진다고 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크리스찬의 자유가 올바르게 가르쳐 질 때 되어 진다고 한다.

b. 제2부. 행동(선행) 혹은 봉사에 관한 문제—external man에 관한 것.

### 1) 선행의 필요성

Luther는 둘째 부분인 The external 혹은 outward man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기서 그는 신앙과 선행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만일 신앙이 모든 것을 행하고 단독으로 의에 이르기에 충족하다면 왜 선행이 명령되어 있는가? 이문제에 대해 답하기를, 만일 우리가 전적으로 내적이고 완전히 영적인 사람들이라면「우리는 몸을 편히 가져 아무 일도 아니하고 신앙으로만 만족하리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만 마지막날인 죽은 자들의 부활의 날에만 그러할 것이며, 우리가 육체가운데 사는 한 오직 미래의 삶에서 완성될 것에 어느 정도 나가기 시작할 것 뿐이라고 한다.<sup>91)</sup>

이렇게 볼 때, 크리스찬은 모든 사람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한다는 것을 재확

91) Ibid. 그는 여기에서 롬8: 32의 Paul의 말,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참으로 더 큰 부분인 성령의 충만함까지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cf. Paul Althaus는 D. M.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mar, 1883) 6, 204를 인용하면서, works(and suffering) are exercises of our

92) Ibid., p. 328. cf. 이와 같은 Luther의 사상은 롬7: 22~23; 고전9: 27; 갈5: 24등에 근거한다.(Ibid., p. 329). Paul Althaus는 The Ethics., p. 14에서 “For Luther, our love of God and our love of our neighbor cannot be seperated.”라고 했으며, p. 14에서는 Luther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for Luther emphasizes that we must experience God’s love for us before we can seriously love our brother; he also emphasizes that our experience of God’s love necessarily in our loving our brother.”라고 했다. 그리고, Charles S. Anderson은 op. cit., p. 40.에서 Luther의 commentary on Galatians를 인용하면서, “From faith flows love and joy in the Lord, and from love a joyful, willing and free mind that serves one’s neighbors willingly and takes no count of gratitudes or ingratitude, of praise or blame, of gain or loss”라고 하면서 신앙과 사랑과 이웃의 관계를 설명한다.

언할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자유로운 한에 있어서는 그가 일을 하지 아니하나, 종으로 있는 한 그는 모든 일을 행한다고 함으로써 선행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 2) 육정과 방종의 극복

인간은 영에 있어서 신앙을 따라 내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고 또한 충분히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것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 신앙과 부는 내세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지 않으면 안된다. 어쨌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죽고 말 생애 머물러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은 그 자신의 몸을 제어해야 하며, 동료들을 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공적이 시작되며 또한 한가히 지낼 수 없게 된다. 그는 금식, 절제, 노동 및 다른 적절한 훈련으로 그의 몸을 잘 단련하고, 몸을 성령의 지배아래 두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몸은 내적인 사람과 신앙에 복종하고 순응하며, 신앙에 항거하지 않고, 내적인 사람에게 방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신앙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적이거나 사람은 그 안에서 매우 많은 유익이 그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며, 행복하기도 한 것인데, 그러므로 강제적인 것이 아닌 사랑을 줌으로써, 이득을 생각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직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sup>92)</sup>

그리고, 그러한 극기와 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공적을 행함에 있어서 인간이 그것으로 하나님앞에 의롭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앞에서 의가 되는 신앙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sup>93)</sup> 그렇게 함으로써 루터는 works do not justify 사상을 재확정한다.

## 3) 의롭게 된 크리스찬으로서의 행동.

여기에서 루터는 두 가지의 analogy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낙원에 있던 상태인데, 그때 그에게 그 동산을 경작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주신 것인데, 이 임무는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행하여진 참으로

93) Ibid., p. 329.

94) Ibid., p. 330. cf. Gustaf wingren, op. cit., p. 2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이 이것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가장 자유로운 일이었으며, 아담이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또한 우리들 모두의 생  
태의 권리가 될 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하며, 믿는 자의 선행은 이와 같은 것  
이라고 한다. 즉 믿음을 통하여 낙원에 되돌아가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며, 그가 의롭게  
되거나 의롭기 위하여 선행을 필요로하지 않는 것이다.<sup>94)</sup>

#### 4) 신앙과 선행<sup>95)</sup>

여기에는 Luther는 Works neither save nor damn을 논하는데, 더우기 아무 선행도  
불신자를 도와서 의롭게 하거나 구원하지 못하며 그와 반대로 어떤 악한 행위도 그를  
악하게 만들거나 파멸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그 사람과 나무를 악하게 만드는 불신(un-  
belief)이 악하고 저주를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sup>96)</sup>

계속해서 Luther는 신앙이 없는 선행의 쓸데없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앙이 없는 선행  
을 비판한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가르친다고 한다.<sup>97)</sup>

마음으로 그는 이웃을 위한 사랑과 봉사로서의 선행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육신 가운데서 그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역시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도 산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며, 그 자신을 위해서  
살지는 안을뿐 아니라, 이렇게 하기위하여 그는 다른 사람들을 더 진실하고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그의 몸을 예속시킨다는 것이다.<sup>98)</sup>

95) Luther는 이 부분에 앞서 선인이 선행에 앞서야 함을 밝히고 있다. (Ibid., p. 331). cf. Thomas M. Lindsay, History of the Reformation Vol.1H, p. 241. "they are good works in the sense of making a man good, but as the signs of his faith." 그리고, Luther는 1520. 3~5 월에 걸쳐 선제후 요한에게 Sermon Von den Guten Werken을 바친 적이 있다.

96) Ibid., p. 332. cf. Jürgen Moltmann, Theology and Joy, p. 67.에서, "Free works then are works freed from the purpose and necessity to justify oneself."

97) Ibid., p. 333. cf. James Atkinson, The Great Light., p. 56. "Good Works, he argues, are only good in that God God commands them, and are not to be thought of as the good works we choose of ourselves, e.g. fasting and pilgrimages."

98) Ibid., p. 335. 여기에서 그는 롬14: 7~8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는 말씀으로 논증한다. cf. Paul Althaus, The Ethics., p. 14. "For Luther, our love of God and our love of our neighbor cannot be separated."

99) Ibid., pp. 336~337.

5) 귀감으로서의 그리스도(The example of christ)

이러한 생애의 귀감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너희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라는 빌2:5~8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귀감이 되심을 증거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것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이러한 종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루신 모든 공적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sup>99)</sup>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그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신앙으로 충만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며, 또한 믿음으로 얻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족해야할 것이라고 한다. 이 신앙은 크리스찬의 생명과 의와 구원이기 때문이다.<sup>100)</sup>

6) 자유로운 사랑에 근거한 사랑.

여기서 루터는 그 예들을 들고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와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바울의 경우 갈2:3과 롬14:1의 경우를,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마17:24~27의 세 금문제를 예증하면서, 자유로운 사랑에 근거한 선행에 대하여 설명한다.<sup>101)</sup> 아울러 바울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롬13:1~7처럼, 즉 크리스찬들은 통치하는 당국자들에게 복종하고, 모든 선을 행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나, 그들은 이미 신앙으로 의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 Ibid., p. 337. 그는 계속한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롭고 기쁘게 내 마음을 다하고 열렬한 뜻을 다하여 더할 나위없이 귀한 그의 부로 나를 뒤덮으신 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가 받으실만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는 자신들을 하나의 크리스찬으로(that we may be christ to one another) 우리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Ibid.)

101) Ibid., pp. 339~340. cf. J. M. Porter, op. cit., p. 6. “Where the true friendship exists, kind acts or good works are done for each other joyfully without recourse to an accountant system of favors. Just so, a christian joyfully fulfills his obligations for good works once his relationship with God has been properly established.”

102) Ibid., p. 340. cf. Jürgen Moltmann은 op. cit., p. 70에서, “The liberation of persons by faith must go hand in hand with free and liberating works of love, as Luther has said.” 라고 했다. J. M Spier는 op. cit., p. 97에서 사랑은 부모의 사랑, 자녀 사랑, 조국, 동료등에 대한 사랑등은 temporal relation을 갖는다고 하면서, “This temporal love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religious fullness of love. The latter is revealed by Christ as the fulfillment of the law”라고 했으며, Moltmann도 계속하기를, “Love is the concrete expansion of liberty” (p. 86)라고 했다.

이러한 것으로 의롭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자유가운데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당국자 자신들을 섬기며 자유로이 사랑에서 그들의 뜻에 복종하리라는 것이라고 한다.<sup>102)</sup>

그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독교적인 선행은 사랑에서 우러러 나오는 행동임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자유에 대한 무지(Ignorance of Liberty)를 비판하고 있다.<sup>103)</sup>

#### 7) Luther의 기독교적 자유에 대한 결론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그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서 산다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신앙에 의하여 그는 그 자신 이상으로 하나님께 올리어지며, 사랑에 의하여 그는 자기 자신 이하로 이웃에게 내려 간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사랑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것은 요1:51에서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결국 Luther는 그의 자유에 대한 총결론을 내리면서, 그것은 영적인 자유이며 모든 죄와 율법과 계명에서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켜주는 자유이고, 하늘이 땅보다 더 뛰어난 것과 같이 이 자유는 외적인 다른 모든 자유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해하며 보존하게 하여주십시오. 아멘”이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린다.<sup>104)</sup>

### C. John Calvin과 자유개념

#### 1. 그의 생애와 사상

##### a. 그의 생애

칼빈(John Calvin : 1509. 7. 10~1564. 5. 27)은 Luther보다 20년후에 프랑스 Noyon에서 시기관이었던 Gérard Cauvin의 아들로 태어났다.<sup>105)</sup>

103) Ibid., p. 342. 여기서 Luther는, 많은 분간 없는 성직자들이 공적을 찬양함으로써, 신자들을 선동하고 격려하고, 면죄부로서 그들을 추켜 올리면서도,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결코 가르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104) Ibid., p. 343. cf. 물론, 이 결론을 내린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자유에 대한 그릇된 견해, 무지한 사람들, 예식들, 신앙의 테스트,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Theodidacti(“Men need to be taught of God)을 역설한다.

105) 오병세, op. cit., p. 699. cf. ‘칼빈’이라는 이름은 Cauvin의 Latin어 음역에서 비롯된 것임.

106) T. H. L. 파아커 저, 김재준 역, 칼빈의 모습, p.2. cf. Calvin이 아직도 초등학교를 배우고 있는 동안에, Luther는 벌써 Wittenberg에서 시편과 갈라디아서의 복음적인 강의를 하고 있었다.

칼빈 자신은 자기손으로 개혁을 사작한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느지막 해서 신학적인 무대에 등장한 사람이다. 그때에는 벌써 개혁자들의 초기 전쟁은 끝나치고, 종교개혁은 하나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509년 그가 출생한 때는 수도사 Luther가 수도원안에서 4년동안의 정신적 고민과 평화로운 良心의 추구를 마친 때라고 할 수 있다.<sup>106)</sup> 어릴 때에는 교황제도에 무조건 헌신했으며, 교역자가 되기 위해 Paris, La Marche, Montaigu대학 등에서 신학을 연구하였다.<sup>107)</sup>

그러나, 그의 부친이 Noyon성직회에 불만을 품고, Calvin이 법률을 공부하도록 강권하여 3년간 법학을 배웠으나, 부친이 별세한 후에는 다시 신학으로 되돌아 왔다. 1522년 Ceneca의 De Clementia를 주석 출판하여 일류학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1536년에는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를 출판하였다. 이듬해에 Strasbourg로 공부하기 위하여 가던 도중에 Geneva에서 Farel을 만나 종교개혁에 참가하게 되었다.<sup>108)</sup> 처음에는 산·피엘교회에서 바울서신을 강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10월초 로잔에서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과 공개토론을 한 후 명성을 얻고 곧 교회개혁을 시작했다.

Calvin은 특히 자녀의 종교교육, 도덕적훈련, 신앙고백제정 등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신앙고백을 따르지 않으려는 자들의 강력한 반항과 반대파들의 시의회에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이에 1538년 추방되어 Strasbourg에서 3년간 머물게 되었는데, 이 기간동안에 그는 Bucer 및 독일개혁자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졌고, 로마서 주석을 출간하고, 신학교육 및 설교자로서 폭넓은 활동을 벌였으며, 1540년에는 Idelette de Bure 여사와 결혼했다. 그가 그곳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로마 추기영 Sadoleto가 Geneva에 편지하여 로마 교황에게 복종하므로 곤경에 처해 있었다. 결국 Calvin이 장문의 편지로 이에 답하여 제네바를 어려움에서 구출하여 냈으며(1539), 여러가지 어려움과 변화를 겪은 Geneva에서는 다시 Calvin을 초청하기에 이르렀다.

107) 오병세, op. cit., p. 699. cf. T. H. L. 파아커, op. cit., p. 3. “그의 소년시대부터 그의 생애는 결정되어 있었다. 그는 교역자가 될 예정이었다.” cf. Eerdmans' Handbook, p. 380. “Calvin was always a conscientious student—at orleans, Bourges and the Univ. of Paris.”

108) 오병세, op. cit., p. 699. cf. Eerdmans' Handbook, p. 381. “Calvin was in trying to build a more 「visible City of God」 in Europe—with Geneva as a Starting Point.”

109) Ibid., pp. 690~700.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외에 다른 어떤 정권을 이용하는 일을 극히 삼가했으며, 그의 청렴한 생활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으며, 학창시절의 과도한 공부로 인해 소화기의 만성질환을 얻고, 편도선 결석증으로 1일1식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학문연구를 쉬지 않았다. 1564년 5월 17일 Geneva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Calvin은 별세했다.<sup>109)</sup>

#### b. 그의 사상

1541년에 열렸던 Worms회의에서 Melanchton은 Calvin을 가리켜 “그 신학자”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유일한 신학자’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신학인 칼빈주의(Calvinism)는 교부들의 전통에 근거한다. 자유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Augustine과 Calvin은 기독교 주요사상에다 새로운 교리를 창안해 낸 자이며, 그들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선택, 예정교리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부들의 문헌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해서 범하는 오류인데, Augustine과 Calvin은 오직 성경에 근거했을 뿐아니라, 동시에 초대교회의 신학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sup>110)</sup> 그의 신학이야말로 종교개혁 신학의 최정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Calvinism은 Luther, Bucer, Zwingli의 노력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Calvin의 사상을 말할 때에, -물론, 다른 이들도 5대교리를 말하지만, -L. B. Boettner가 언급한 The Five Points to Calvinism인 T-U-L-I-P를 생각하게 된다. 즉, 전적 무능력(Total Inability),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제한적 구속(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가 그것이다.<sup>111)</sup>

#### 1) Total Depravity or Total Inability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 또는 본성이 부패하고 죄악되는 것이다. 그

110) Ibid., p. 700. cf. 이점에 있어서 Marvin R O'connell은 op. cit., p. 126.에서 말하기를, Calvin의 Luther보다는 창의적인 사색가는 아니었으며, 그는 그 이전에 지나갔던 개혁가들로부터 자유롭게 빌어 왔는데, 아마도 대부분이 Martin Bucer에게서 였고, 적게는 zwingli에게서 였다. Calvin의 기본적인 tenets는 궁극적으로 그 통찰력들과, 사람들의 전적부패, 그리스도안에서 전가된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자유로운 은사, 그리고 성경에서의 이러한 정상적인(paramount) 진리들의 발견에 있어서 Luther에게 의존했다고 한다.

111) L. B. Boettner, op. cit., p. 31.

112) 오병세, op. cit., p. 703.

래서 Wmc. 6. 2에도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죽게 되었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었다고 한다.<sup>112)</sup>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적으로 또 오직 외골수로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sup>113)</sup>

## 2) Unconditional Election

창세전에 타락한 아담의 자손중에서 어떤 개인들을 그들에게는 분외의 은혜의 대상으로 선택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특정한 죄인을 구원하기로한 영원한 선택은 다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주권적 의지에 기인하는 것이다.<sup>114)</sup>

그런데, 성경은 선택을 개인의 공적과는 관계없이 그것을 과거에 있었던 일과 같이 또 전연 주권적인 것으로 해주신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알미니안 주의는 이 선택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서 인간의 손에 넘겨 쥐려고 한 것이다. 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는 참으로 개혁주의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15)</sup>

## 3) Limited Atonement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에게 주신 택자는 구원받기위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택하여 준 자만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온 것이다.<sup>116)</sup>

속죄의 가치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선택된 자만을 유효하게 하여 구원하시는 것이며, 속죄는 그 본질상 범위가 있는 것이다.<sup>117)</sup>

## 4) Irresistible Grace

Wmc10 : 1에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다.

생명으로 예창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만을 자기가 정하시고 적당하

113) L. B. Boettner, op. cit., p. 34.

114) 오병세, op. cit., p. 703.

115) L. B. Boettner, op. cit., p. 37.

116) 오병세, op. cit., pp. 703~704.

117) L. B. Boettner, op. cit., pp. 49~50.

118) cf. 이 점에 대해, 오병세, op. cit., p. 704.에서는, "성령은 타력이나 인간의 협력에 의하여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유효적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고 인정한 때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실제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과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알수 있도록 굳은 마음을 없게 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이때에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며 은총으로써 그것은 원하도록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다.<sup>118)</sup>

#### 5)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or the Security of Believers.

중생을 통하여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안에서 영원히 안전보장된다.<sup>119)</sup> Wmc. 17 : 1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써 기록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Boettner는,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절대 무조건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선택하시고, 성령의 구속의 은혜를 그들에게 유효하게 적용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구원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sup>120)</sup>

그리고 Calvin은 사회기구들의 기원과 인간사회에서의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았으며,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21)</sup>

## 2. 기독교 강요에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적 자유(Christian Freedom)에 대하여

칼빈의 Inst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한 바 있는 John T. Mc Neill은 Christian Liberty를 3구분으로 나누었다.

첫째 부분은 신자들이 하나님앞에서 그들의 칭의에 대한 확신을 추구할 때에 그들 자신을 율법위에 올려 놓고서는 율법의 의를 잊어버리는 the consciences of believers의 부분으로 보고, 둘째 부분은 첫째 부분에 의존하는 것인데 그들의 양심이 율법적인 어떤

119) 오병세, op. cit., p. 704.

120) L. B. Boettner, op. cit., p. 68

121) C. Gregg Singer, John Calvin: His Rootes and Fruits, Nutley, New Jersey: persbyterian

122) John T. McNeil, Calvin: on God and political Duty, pp. 27-31.

의무하에 있게되는 것으로서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율법의 명으로부터는 해방된 것이며, 셋째 부분은 아디아포라가 있는 외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구애받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무관심하게 때로는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그들을 생략해버리기도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인데, 이 자유에 대한 지식은 역시 우리에게는 아주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없이 우리는 양심의 평정을 가질 수도 없으며 또한 어떤 미신들이 끝없을 것이라고 한다.<sup>122)</sup>

사실 기독교강요 초판은 1536년 3월 Basel에서 라틴어로 출판되었으며, 이것은 작은 포켓형 단권 516페이지 분량의 것이었는데, 1장 율법, 2장 신조, 3장 주기도, 4장 성례 (이상은 Luther의 요리문답 순서대로 되어 있음), 5장 거짓된 성례, 6장 기독교자의 자유로 되어있다. 그리고 5판은 Latin어로는 1559년에, 프랑스판으로는 1560년에 출판되었는데 이것이 결정판이며, 제4권80장으로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편찬했다. 그런데 본「Christian Freedom」은 Inst. III. XIX에 기록되어 있다.<sup>123)</sup>

Calvin은 Christian Freedom 에서 I. 기독교적 자유에 대한 교리의 필요성, II. 양심의 자유는 율법의 강제 없어도 순종하는 것, 그리고, III. 자유의 효력과 성격을 설명하고 있으며, IV. 약한 자의 범법문제와 기독교적 자유와의 관계를 취급한 후에, V. 자유와 양심을 인간정치와 전통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 3.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자유개념<sup>124)</sup>

123) 오병세, op. cit., p. 701.

제1권-창조주 하나님 지식과 우리 인간의 지식, 제2권-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주로서의 신지식, 제3권-그리스도안에서 구원을 유효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제4권-교회, 은혜의 방편, 국가, 정부.

124) 여기에서는 John T. McNeil의 번역본을 주 Text로 하고, 각 항의 소제목은 김문제 역, 기독교 강요(서울: 세종문화사, 1977)의 배열을 참고 한다.

125) Calvin, Inst., p. 833.

cf, 2는 이곳 외에서도, Inst. II. 7. 14-15에서는 도덕적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저주가 폐기되었으며, 그 저주의 폐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그리고 Inst. III. 11. 7-8에서는 The significance of faith for justification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cf. George L. Mosse는 Thew Reformation, p. 59에서 Luther의 Justification through Faith와 Calvin의 Salvation vy faith를 대조시키면서, "Like Luther, Calvin developed his thought around the justification of sinful man through the mediation of christ."라고 했다.



a. 기독교적 자유에 관한 교리의 필요성 - 갈1~3장에서 三部중 첫째부분을 봄(1~3항)

1) 자유에 대하여 가르칠 필요성.

a) 칭의의 자유와의 관계

Calvin은 여기에서 복음의 교리를 요약해서 말하려고 할 때, 이 자유의 문제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극히 필요한 것이어서, 이것에 대한 지식을 떠나서는 양심은 의혹이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감히 시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주저하고, 또 뒤로 물러나 주춤하며, 또 줄곧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칭의의 부가물(an appendage of Justification)이고, 칭의의 힘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유익을 주는 것이다.<sup>125)</sup>

b) 자유의 유익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빙자하여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순종을 박차버리고, 구속없는 방종으로 몸을 내동댕이치며, 또 어떤 이들은 자유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것이 일체의 절제와 질서, 그리고 사물의 분별을 철거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Calvin은 우리가 이 자유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는 한 그리스도나 복음진리나 영혼의 내적 평안 어느 하나도 옳게 의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우리는 교리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눌러 버리지 말고, 반면 여기에서 십상 일어나는 모순된 반대론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sup>126)</sup>

2) 율법으로 부터의 자유

126) Ibid., p. 834.

127) Calvin은 여기에서 기독교적 자유를 3부분으로 보는데, 그것은 ① 신자들의 양심이 하나님앞에서 칭의를 구하는데 있어서 일체의 율법적인 의를 넘어서, 또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p. 834), ② 양심이 말하자면 율법의 필연성 때문에 강제되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멍에로 부터 해방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이며(p. 836), ③ 한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애받지 않고 이용하거나 목살해도 좋다는 것(p. 838)의 3부분이다.

cf. John T. McNeill도 Calvin : on God and political Duty, pp. 27-31.에서 이것을 언급했다. W. Nijenhuis도 Ecclesia Reformata, p. 116에서 Calvin의 Inst.에 나오는 christian freedom을 소개하면서, "Freedom is in the first place freedom from rigid straight-jacket of self justification.....This freedom means in the Second place a spontaneous obedience of God's will.....This implies in the third place freedom in the matter of the "res externae, quae per se sunt adiaphorai" among which are included food and drink, feastedays, clothing."이라고 언급했다.

a) 자유의 구성 요소중 첫째<sup>127)</sup>

신자들의 양심은 하나님앞에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확신을 구하는데 있어서 일체의 율법의 의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넘어 서고 (rise above), 또 더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누구 하나도 의인으로 두기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칭의에 대한 일체의 소망을 소외되게 하든가, 또는 율법자체로서부터 해제되게 하든가 그리하여 행함에 관하여는 전혀 고려에 넣지 않든가 어느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의를 얻기 위하여는 보잘것 없는 행위들간에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행위의 척도나 한계를 미리 정해놓을 수가 없고, 스스로를 율법전체에 대해 빛진 자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칭의」를 논하게 될 때에는 율법에 관한 언급을 제외하고, 행함에 대한 일체의 생각도 제쳐 놓고, 오직 하나님의 공훈만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자신들로부터 눈을 돌려 오직 그리스도만을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가가 아니고, 불의하고 가치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는가인 때문이라고 한다.<sup>128)</sup>

3) 양심의 자유는 율법의 강제 없어도 순종함—둘째 부분(4~6항)

a) 강제에 의하지 않는 자발적인 순종.(자유의 둘째 요점)

이것은 첫째 요점에 의존하고 있는데 양심이 율법의 필연성 때문에 강제되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의 율법의 지배아래 있는 한 끊임없는 공포 가운데 잡혀 있으므로

128) Ibid.

cf. Luther도 그의 CL., p. 337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Luther에게서와 마찬가지로 Calvin도 Justification by faith를 기독교의 중심적인 교리로 주장했다. James Atkinson은 op. cit., p. 181에서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As Luther used frequently to say that it is not faith that justifies but Christ, Calvin too argued that faith achieves value only in relation to its content Jesus Christ"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Luther는 faith awake와 faith asleep의 레벨로 나누었다고 roland H. Bainton은 The Reformation, the sixteenth century, p. 50에서 말했고, Calvin의 경우 Historic faith와 Saving faith로 나누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J. Atkinson은 op. cit., p. 180에서, "...by the former a man believes that God and christ exists, by the second he believes in God and christ"라고 했다.

129) Ibid., p. 836.

이런 종류의 자유가 이미 부여 되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을 선뜻, 그리고 쉽게 가지게 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sup>129)</sup>

그리고 이 강제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constraint)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joyous obedience)을 하도록 해주는데 율법의 이같은 엄한 요구 아니 율법전체의 엄격함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와 같은 자비로서 부르시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상쾌하게 그리고 큰 열심을 가지고 그 부름에 답하고, 또 그의 인도를 따를 것이라고 한다.<sup>130)</sup>

b. 은혜로 해방되어, 신자들은 남은 죄(the remnants of sins)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 저자는 선행을 일체(all the good works)를 신앙에 들리고, 아니 신앙으로 만든 그 이유가 있으며, Paul은 롬6 : 12, 14에서 우리가 율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부터 해방되어 있기에 그들의 행함은 율법의 척도에 따라서 검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좋

---

130) Ibid., p. 837.

cf. J. Atkinson, op. cit., p. 178에서 calvin이 율법의 기능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한다. "First, it was a mirror of sin. It showed man how sinful he was, and condemned him, but it condemned man only of sin. It showed man how sinful he was, a restraint to the evil one, a all, it has a function to play in the lives of believers. It will serve to make the believing man more certain what the will of God is and quicken him in obedience to God."

cf. Rousas John Rushdoony도 the one and the many, p. 11.에서 말하길, "liberty and law are not hostile factors but necessary aspects of one another, so that the one can not exist without the other"라고 하면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131) Ibid., p. 838.

cf. L. B. Boettner, op. cit., p. 40.

선행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며, 그것은 구원의 열매 또는 증거라고 한다.……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인 것이며(엡2 : 9~10), 선한 행위(good works)는 크리스찬들에게 호홉고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다고 논하는 자들을 공박한다.<sup>131)</sup>

#### 4) 자유의 효력과 성격(7~9장)

여기에서 Calvin은 자유의 세계 요점인 외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논하는데, things indifferent 즉 “무관한 것들”인 ἀδιάφορος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로마서에 나타난 원리들로써 하나님의 은사들을 그의 뜻대로 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논증한다.

그가 말하는 세째 부분은, 그 자체에 있어서는 ἀδιάφορος 즉,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외적인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애받지 않고, 어떤 때에는 그것들을 이용하고, 다른 때에는 무관심하게 묵살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다. 이 자유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갖고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양심은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미신은 그칠 사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32)</sup>

5) 하나님의 은사들은 그의 뜻대로 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세째 요점을 로마서로 증명함)

바울은 롬14 : 14에서 “내가 알고 있는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132) Ibid.

cf. 사실 이 ἀδιάφορος에 관한 문제는 calvin 시대에 많이 논의되었던 것이었다. Melancthon은 「Apology of the Augusburg Confession」 XV. 52(Concordia Triglotta, pp. 328f.), “사랑을 위하여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디아포라를 준행하기를 거절하지 않는다”(Ibid.)고 했다. Charles partee, Calvin and Classical philosophy (Leiden : E. J. Brill, 1977), pp. 73-74에서도 “Thus calvin asserts man’s freedom in indifferent things (which he identifies with external things) if they are received with thanksgiving and used in an indifferent way.”라고 설명했다.cf. J. Douma는 Christian Morals and Ethics (New Delhi : Ambassador press, n. d.), p. 70에서 adiaphora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만장일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의 견해를 피력한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때, 왜 그러한 연약하고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누구든지 크리스찬의 자유로서의 자유를 경험해 본 사람이 라면 선하거나 악한 것과 판%가 없는 그래서 그 자신이 주인(Boss)인 지경에 결코 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빌 1 : 9f의 글을 인용하면서, 여기에서의 what is excellent하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in order to discern the diapheronta”인데, 이 diapheronta를 W. Bauer가 adiaphora의 반대말로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There is nothing “neutral” in his life, for his whole life has been claimed by christ.”라고 한다.

133) Ibid., p. 839.

Res omnes externas liberati nostrae subiicit.”  
cf. Inst. III. 10. 4. “in rebus externis libertas.”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에는 속되니라”고 했는데, 이 말에서 바울은, 모든 외적인 일들은 우리의 자유에 속한 것이라고<sup>133)</sup>하였다. 그러나 어떤 미신적인 견해가 우리를 의혹으로 빠뜨린다고 하면, 본질상 순결한 것들이 무리들 속에 더럽혀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양심의 아무런 가책이나 마음의 불안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도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얻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칼빈은 신앙의 건덕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할 것임을 언급한다.<sup>134)</sup>

6) 자유는 남용을 금한다.(against the abuse of christian freedom for gluttony and luxury)

Luther가 지적했듯이 Calvin도 여기에서 기독교적 자유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있는데, 곧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한다.<sup>135)</sup> 그런데 이 자유의 모든 힘은 하나님앞에서 놀라서 떨고 양심을 잠재우는데 잇는 것이다. 즉 그 양심은 혹은 죄의 용서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차 있고, 혹은 불안전하고 우리육신의 죄악 때문에 더럽혀진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근심하고, 또 어느 편에도 상관 없는 것들을 사용하는 일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 자유를 육체적인 욕심의 구실로 하여 하나님의 좋은 은사를 자기 정욕을 위하여 남용하는 자들과 자유는 사람앞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악한 형제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자들은 이 자유를 꼭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134) Ibid., p.840. cf. Calvin은 여기에서 자유로이 지킬 수 있는 모든 의식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의 양심은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도록 구에 받지 않게 될 것이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자애에 의해서 신앙의 건덕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야 된다고 한다.

135) Ibid.

cf. Luther도 Cl., p. 343에서, “It is a spiritual and true liberty, and makes out heart free from all sins, laws and mandates……”라고 함으로써 크리스찬의 진정한 자유의 성격을 말한다.

136) Ibid., pp. 840-841. 여기에서 그는, p. 841에서 이 부분을 고래의 어느 말로써 확인한다. 즉, “It is a true saying that under coarse and rude attire there often dwells a heart of purple, while sometimes under silk and purple is hid a simple humility.”

비판한다.<sup>136)</sup>

그러므로 Calvin은 여기에서 결론짓기를 우리 각자는 자기 신분에 알맞도록 또 소박하게 또는 적당하도록 또는 풍성하게 살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공급해 주신 것이 사치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크리스찬적인 자유의 법칙은 Paul이 빌2: 11~12에 말한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하는 법칙이라고 한다.<sup>137)</sup>

7) 약한 자의 범법문제와 기독교적 자유와의 관계(10~13항)

a) 약한 자를 실족케 하는 크리스찬의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여기에서 Calvin은 많은 이들이 마치 그들의 자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지 않는 한 건전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하여 무차별하고 경솔하게 사용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들의 사려함이 없는 사용때문에 약한 형제들이 빈번히 실족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히 명하고 있는 바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주의를 가지고 이 척도를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sup>138)</sup>

b) 실족에 대한 두 가지 종류(주어진 실족과 받은 실족)

Calvin은 실족(offenses)를 given offense와 received offense로 나누어 설명한다.<sup>139)</sup>

137) Ibid., p. 841. 이렇게 말함으로써 calvin은 자유에 대한 남용을 반대하며, 오히려 건덕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cf. Ibid., p. 845. “we must at all times seek after love and look toward the edification of our neighbor.”

138) Ibid., p. 842.

cf. Luther는 CL. p. 346.에서 약한 자 앞에서 자유를 행사하는 문제를 논한다. ”but take care not to use your liberty in the sight of the weak……on the other hand, use your liberty constantly in the sight of the tyrants and the stubborn……”

139) calvin은 실족에 대해서, offensio, offendiculum, Scandalum등의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했다.

140) Ibid., p. 483.

cf. 여기에서 calvin은 전자를 약한자의 실족, 후자를 바리새인들의 실족이라고 별명을 붙이는데, 우리는 자유의 사용을 약한 형제들의 무지에 대하여는 양보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가혹한 행위에 대해서는 한치라도 양보할 수가 없다고 한다. (Ibid.)

cf.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는 바, Luther의 CL. P. 346에서도 마찬가지이다. fn. 138. 참조.

주어진 실족이라는 것은 사려없이 경솔함으로, 또는 방자하게 또는 무모하게 순서를 밟지 않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함으로써 무지한 자들이나 순박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수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실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실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받은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악하거나 부당한 것도 아닌것의 악의나 흉악한 저의를 가지고 실족을 주는 계기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140)

8) 자유를 사용하는데 대한 조절 원리.

여기에서 그는, Paul의 경우 실족을 가져 오는데 있어서 우리의 자유가 어느정도로 조절되어야 하는가, 또는 그것과 맞바꾸어야 하는가(Vel moderanda.....Vel offendiculis redimenda)를 교훈과 모범으로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한 것같이 보인다고 본다. 즉, 바울은 디모데를 동행으로 받아 들였을 때 할례를 행했다. 그러나 디모데게 할례를 줄 만큼은 납득이 가지 않았다(갈2:3). 여기에서 그가 행한 행동은 틀렸지만, 그의 목적이나 정신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었다고 Calvin은 본것이다. 여기에서 칼빈은 자유에 대해 올바르게 조절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약한 이웃을 위한 건덕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이웃의 건덕을 위하여 힘쓰고 목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고전 10:24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으로 입증한다.(141)

아울러 이웃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에 배반하지 않고 복종해야 함을 말한다.(142)

9) 자유와 양심을 전통과 인간정치와 관련시켜 논함.

a) 모든 인간의 법으로부터의 양심의 자유(freedom of conscience from all human law)

Calvin은 여기에서, 신자들의 양심은 자유의 특권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의 양심에

141) Ibid., p. 845. 계속해서 칼빈은 말하기를, “Nothing is plainer than this rule : that we should use our freedom if it results in the edification of our neighbor, but if it does not help our neighbor, then we should forgo it.”

142) Ibid., p. 846.

cf. Charles S. Anderson은 op. cit., p. 48에서, Luther의 main concept가 trust이라면 Calvin의 경우에 그것은 “Obedience”라고 지적하고 있다.

143) Ibid., p. 846.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를 놓지 못하도록 은혜로 도와주시는 만큼 우리는 일체의 인간권세로부터 풀려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 대하여 그들이 그렇게 큰 은혜에 대하여 감사가 없다든가 또는 양심에 그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43)</sup> 그러므로 바울은 만약 우리가 우리 영혼을 인간밀에 종속시켜 버린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갈2:21)고 말한다는 것이다.

## 10) 두 나라(The Two Kingdoms) (영적인 통치와 인간적인 통치)

### a. 두 가지 통치

인간가운데서 실족하는 일에 없도록 하기위하여 두 가지 통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즉 그 두가지 통치란, 영적인(Spiritual)통치와 정치적 (political)통치인데,

144) Ibid., p. 847. Calvin은 이것을 영적 왕국, 정치적 왕국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했다. "The one may call the spiritual kingdom, the other political kingdom."(Ibid.). 또한 그는 Inst. IV. 20. 4.에서 "Secular government rests upon God's providence and sacred prescription"이라고 한 바 있다.

J. Atkinson도 op. cit., p. 188에서 calvin의 국가 개념 혹은 세속정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calvin regards the state as fulfilling its appointed role in relation to the service of christ's Dominion. calvin was not concerned about the state, mor about the christian state. His concern was with christ, and the significance of the civil power had in relation to this fellowship with the Lord."라고 했으며 계속해서, p. 189에서는 정부의 통치자들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they are not co-rulers with God but His servants."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세속권력은 복음의 순수한 전파를 보호해야 하며, 우상과 꾀방을 예방하고, 징벌해야 한다는 등등 폭 넓게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Herman Dooyeweerd는 The christian Idea of the state에서 the kingdom of God in christ Jesus와 the temporal societal structures, in which God's general or common grace arrests the dry-rot caused by sin으로 나누어 설명했고, J. I. packer는 knowing Man, p. 67에서 종교개혁의 특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The Reformation insistence that magistrates held their power directly from God deepened the sense that government was a stewardship and a form of service to God and Man"의 성격으로 보았다. 그리고, william park Amstrong의 calvin & the Reformation, p. 72.에서 August Lang은, "Calvin이 국가에 대한 복음적인 기초를 발견하기를 회구함에 있어서 가장 possitive했다."고 보았다. Simon Kistemaker는 Calvinism : Its History, principles and perspectives, p. 69. 에서, 교회의 임무는 말씀의 신실한 선포이며, 그 구성원들에게 부지런히 교훈하는 것이고 그 구성원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생의 각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을 언급했으며, Abraham Kuyper역시, Calvinism : si stone Foundation Lectures, p. 104. 에서, 각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오직 권위를 수여해준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영적인 통치를 통하여 양심은 경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이고, 정치적 통치를 통하여는 인간사이에서 준수되어야 할 人道와 예절에 관한 의무를 다하도록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 두가지 통치는 보통 영적 현세적 재판권 (spiritual and temporal jurisdiction)이라고도 불리워 지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sup>144)</sup>

b) 양심은 인간제도에 어느 정도 구속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을 부당하게 정치적 질서도 들려서 마치 크리스찬들은 양심이 하나님앞에서 자유를 얻었으므로 그만큼 인간법률에 따라 외적인 통치에 예속되는 일이 더적으며, 또 마치 그들은 영에 의하여 자유를 얻고 있으므로 모든 육적인 예속으로부터 응당 해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지는 것은 외부적 법정이라고 불리우는 것과 양심의 법정(Conscientiae forum, the forum of conscience) (정치와 양심의 사이)을 엄밀하게 구분짓기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더욱 곤란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롬13 : 1, 5에서 말한 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것은 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양심은 또 정치법에 구속받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sup>145)</sup>

c) 양심의 정의

이상의 난점을 풀기위해서 Calvin은 양심에 대한 정의를 어원해서 찾으려고 시도한다. 정신과 지성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물에 관하여 지식을 파악하게 되며, 또 이때문에 안다(“to know”)고 말하며 이것이 지식(knowledge)의 어원이 되는 것처럼, 그들이 자

145) Ibid. cf. J. Atkinson은 op. cit., p. 189에서, “Calvin urged the citizens to a full obedience to rulers as the servants of God, but at the same time assured them that the secular government was a demonstration of God’s fatherly care and providence.” 그래서 그는 권위에 대항한 반역을 곧 하나님께 대한 rebellion으로 본다. 사실 Luther와 같이 Calvin의 이러한 개념은 국가에 굴종(subservienc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적인 연관이 있다고 한다. 즉, 국민도 권위에 예속되지만, 그러나 권위는 그것이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예속된다는 원리라고 한다.

146) Latin어로는 양심이라는 말은 Con (=together) + Scientia (=knowledge)의 결합어인 Conscientia인데, W. Bauer는 dmgeidhsiz를 Consciousness, moral consciousness, Conscience, Cnscientiousness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기와 결합하는 증인으로서 자기 죄를 감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심판자의 법정앞에 관한 감각을 갖게 되는 경우 그 감각을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Calvin은 이해한다.<sup>146)</sup>

양심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중간 수단(a certain mean between God and man)인데, 그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자신속에서 눌러버리기를 용납하지 않고, 그를 추구하여 죄가 있다는 것을 납득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앞에 서도록 하는 의식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종의 간수를 세워 놓고, 그의 모든 비밀을 감시하고 적발해 내어서 무엇 하나 감잡힌 가운데 매장된 채 남아 있을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sup>147)</sup>

11) 양심의 자유는 외적인 통제가 있을 때에도 자유이다.

여기에서 Calvin은 Bondage and freedom of conscience를 논한다. 행위가 사람에게 관여하는 것처럼 양심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선한 양심(good conscience)은 단지 내적인 마음의 순결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의 완수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썼으며(딤후1:5), 후에 같은 장에서, 또 그것이 지성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하였다.(딤후1:19)고 한다. 때로는 이 양심은 인간에 관한 일에 까지 확대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그 선한 양심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48)</sup> 그러나 정당하게 말할 때에는 이 양심은 하나님께만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지 사람을 묶는 것 뿐이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고료에 넣지도 않는—하나님께만 관계 있는—율법은 양심을 묶는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한다.

Calvin은 이것을 결론지으면서, 우리는 율법이 외적인 행위들을 엮어매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양심을 자유로운 것으로 남겨 두는가를 알겠 된다고 한다.

147) Ibid., p. 848.

148) 여기에서 Calvin은 행24:16의 바울이 누가에 의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고 한 경우를 예로 들면서, 그러나 이 말을 한 것은 선한 양심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

149) Charles S. Anderson, op. cit., p. 48.

### III. 결 론(Calvin과 Luther의 사상과 자유개념 비교)

여기에서는 Calvin과 Luther에게 있어서의 그들이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과 Inst. "Christian Freedom"에서 논한 바 크리스찬의 자유개념을 포괄적으로 비교해 보고 결론을 내리려 한다.

먼저, 그들의 자유개념을 비교하기 이전에 그들의 신학적 입장을 비교해보려한다. 사실 Luther와 Calvin을 비교연구함에 있어서 그들의 Christian Liberty개념에 대한 비교연구는 그렇게 많이 행하여 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주로 그들의 신학적 입장이나 개인적인 특징들이 비교되어져 오고 있는 것 같다. Luther가 비조직적이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문제들이 공격해 올 때, 그순서와 구상에 대하여 아무런 분명한 고려없이 글을 썼다고 Charles S. Anderson은 말한다. 그러면서 Luther의 글은 기본적인 일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핵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강조를 두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Calvin은 성경에 대한 그 자신의 이해를 통하여 전체적인 것을 재작업하였으며, 그는 전 프로테스탄트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었던 시스템을 산출해냈으며, Calvin은 조직에 천재였고 그의 논리적인 명료성은 종교개혁에의 중요성을 이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sup>149)</sup> 또한 Anderson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Luther의 main concept가 "trust" 이라면, Calvin에게 있어서는 "Obedience"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Calvin의 강조점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보았으며, 성경관해 대하여서는 Calvin의 경우에 Luther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방법으로 신자들과 메이어 있다고 한다.<sup>150)</sup>

다음으로, 죄인이면서 동시에 믿음 안에서 용납된다는 Luther사상, 즉 Justification through faith에 비교하여, Calvin도 Luther와 같은 견해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으며,<sup>151)</sup> Owen Chadwick의 논점은 priesthood인데, Luther의 경우 그는 평신도의 제사장직에

150) Ibid., pp. 48~54. cf. C. Gregg Singer, op. cit., p. 61. "Calvin looked to the Word of God both the origins of Social institutions and their role in human society."

151) Ibid.

152) Owen Chadwick, op. cit., p. 83. "What was needed was the authority of a rightly called and purified ministry"라고 부인한다.

대한 교리에 치중해서 그 교리로부터 그의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인출해내었는데 비하여, Calvin은 그 교리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에 대한 아무런 실제적인 영향력을 남기는데에는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152)</sup>

그런가하면, B. J. Van der Walt는 말하기를 개혁가들은 또한 중세기 Schola적인 종합적 사고를 뒤집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자유로워지는 것을 가능케 했다고 본다. 또한 Calvin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안내자로서 Augustine이 그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한다.<sup>153)</sup>

그러나,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신학적인 입장에 대해서 N. S. Tiernagel이 잘 종합하고 있는 것 같다. 즉, 개혁의 첫세대는 타오르는 세력에 의하여 지배되었으며, M. Luther는 창조적인 천재였으며, 두번째 세대는 J. Calvin의 인격과 사역에 의하여 동등하게 지배 되었다고 본다. Luther나 Calvin이 둘 다 종교적인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자 규범으로서의 성경에 헌신적이었는데 비록 이 두 사람이 성경을 수용하는 꼭 같은 입장에서 출발하였지만 Calvin의 신학은 사회, 경제, 신학적 함축성을 지니는 것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정치적이었다고 보고 있다.<sup>154)</sup>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Luther와 Calvin 둘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를 선택할 때에만 오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고 있다. Calvin의 논리적인 결론은 구원과 저주사이에는 다른 대응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자를 예정하셨다고 하나, Luther는 이 논리를 수용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성경을 읽은 것은 저주의 책임을 불신적인 죄인에게 둔 것이지 하나님에게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Calvin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심은 그로 하여금 구약을 Luther보다는 조금다른 조명으로 보게 했다고 한다.<sup>155)</sup> 즉 루터가 예표적인 그리스도로 보았던 것을 Calvin은

153) B. J. Van der Walt, *Anatomy of Reformation*, pp. 158~159.

154) N. S. Tiernagel, *op. cit.*, p. 52.

155) *Ibid.*, pp. 55~57. cf. H. Henry Meeter는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alvinism*, p. 32.에서 *Sovereignty of God*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J. H. Scoltolten, P. D. Fabius, A. Kuyper, B. B. Warfield등이 Calvinism의 이 부분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cf. Edwin H. Palmer도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p. 88.에서 Calvin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확신하였기 때문에 여러 세대 사람들이 그의 이름과 예정을 통일시켰다고 한다.

156) *Ibid.*

법적인 율법적인 관습에 있어서도 Zwingli로부터 영향을 받은 Calvin은 하나님에 의하여 특별히 명령되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는 여지를 찾을수 없었다고 한다.<sup>156)</sup>

이제, 그들의 자유개념에 대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Luther도 신앙(혹은 自由)에 관한 내적인 것(inner man에 관한 설명)과 행동(혹은 봉사)에 관한 외적인 것(outer man에 관한 설명)으로 구분하여 논하고 있는 것에 반해, Calvin도 자유교리의 필요성, 양심의 자유와 율법의 강제, 자유의 효력과 성격 등의 주로 내적인 원리들을 먼저 고찰한 후에, 약한 자의 범법문제와 기독교적 자유, 자유와 양심을 전통과 인간정치에 연관시키는 것을 볼 때에 Luther와 Calvin의 서술 양식의 유사성을 볼 수 있다.

Luther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혹은 복음)과 이신득의와 자유, 자유와 선행, 그리고 이웃사랑의 주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며, Calvin은 자유에 대하여 가르칠 필요성에서 칭의와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의 자유등을 논증하고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것과 건덕, 그리고 이웃사랑과 연관해서 설명한 다음에, 자유와 양심의 문제를 전통과 인간정치와의 관계에서 설명한다.

먼저, 그들에게 있어서 특정적인 것은 둘 다 그들의 논증을 proof text로서의 성경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둘 다 율법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취급했는데, 그 개념은 중요한 것이며, 그들의 결론적인 의미는 서로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두 사람다 이신득의(Justification through faith)의 교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Luther는 자유를 달성하는 요소가 신앙이라고 했으며, Calvin또한 칭의와 자유와의 관계를 논하였다.

아울러, 동시에 죄인이면서 의인(Simul justus et peccator) 사상은 Luther에게나 Calvin에게나 공통히 있는 것이다.

만인제사장직에 대해서 Luther는 언급하고 있지만, Calvin의 Inst. III. XI X. Christian

157) 물론, Ronald S. Wallace는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p.6에서 priesthood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의 신학 전반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f. Owen Chadwick, op. cit., p.83. f.n. 152. 참조.

Freedom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sup>157)</sup>

다음으로 Luther의 경우에 있어서 선행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Calvin도 자유를 선행과의 관계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선행에 관한 한 Luther가 조금 더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Luther는 육정과 방종의 극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기와 절제에 대하여 설명한 반면, Calvin도 자유를 실행하는 문제, 약한 자의 범법문제등과 연관지어 설명하면서 사랑으로 억제해야 할 것도 언급한다.

Luther는 자유로운 사랑에 근거한 선행, 사랑에서 우러러 나오는 행동으로서의 기독교적 선행을 언급하는 반면, Calvin도 이웃사랑을 논하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Calvin은 또한 Luther가 직접 언급하지 아니한 *ἀδιάφορος* ( things indifferent )의 문제를 취급했다.<sup>158)</sup>

그리고, Luther나 Calvin이 다같이 두 나라 (Two Kingdoms)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의 본 논문에서 볼 때에 Calvin의 경우는 영적 통치, 인간적 통치로 나누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sup>159)</sup>

그리고, Calvin의 경우, 양심의 자유는 외적인 통제에 대하여 자유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점에 있는 Luther의 경우 그가 크리스찬은 만민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롭다고 한 것과 상통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에, 이상과 같이 고찰한 결과 Luther와 Calvin에게 있어서의 Christian Liberty 개념에 대한 이해는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그들의 관심있게 부분이 서로가 취급하지 않은 것을 취급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서로

158) 이점에 대하여는 f.n. 132 참조.

159) 물론 여기에서 Luther의 두 왕국 개념과 Calvin의 두 왕국 개념상에는 약간의 상이한 점들이 있기는 하다. 아울러, 그들이 신자(혹은 교회)와 국가간의 견해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60) Cornelius Van Til, *The Case for Calvinism*,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3, pp. 78f.에서 Van Til은 Carnell의 Free man은 De Wolf와 Kant의 것과 유사하다고 했으며, 그의 방법은 기독교 정신의 파괴를 요구하며 (p. 82), 그의 방법은 또한 사람을 지으신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p. 99.), Kant의 경우에는 자유인이란 결국은 그 자신에게까지도 전적을 알리어지지 않을 때에야만이 자유하게 되는 것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p. 117.).

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결국 우리가 두 사람의 견해를 종합해서 크리스찬의 자유를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Kant식의 자유도 Edward John Carnell식의 자유도 아닌<sup>160)</sup>, Calvin의 말과 같이 Christian들은 모든 인간법으로부터 그 양심이 자유하며, 외적인 통제로부터 자유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Luther의 말과 같이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되어(perfectly dutiful Servant of all, Subject to all),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축약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Christian은 이러한 자유 개념에 입각한 삶을 살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코 그 자유는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며, 오히려 신앙과 자유로운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삶이며, 진정한 자유의 향유일 것이다.

Abstract

Research on the conception of Christian  
Freedom of M. Luther and J. Calvin.

—focusing on their works, “On Christian Liberty”  
of Luther and Inst. III. XIX.  
“Christian Liberty” of Calvin.—

Byung Kyu, Choi

Department of Theology

Korea Theological Seminary

Major Advisor :

Prof. Soon Gil, Hur, Ph. D.

Even though there's a lot of definitions on the conception of Liberty, to many people Christian Freedom means just like a conception of something being freed from some kind of external enforcement and bondage. And sometimes it could be something which is “freedom from” or “freedom for”.

Hereby we cannot help thinking on what the real and rightful reality of Christian Liberty is. So I tried to research the meaning and reality of it, by considering the two great works of the reformers. And those books are “On Christian Liberty”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of Martin Luther and “Christian Liberty” of Calvin.

Luther's conception of Christian Liberty begins at the principle that a man can be



justifie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as his savior. So from this principle, Luther deduces his maxim which A christian man is a perfectly free lord of all, subject to all.

As a matter of fact, for Luther it was a spiritual and true liberty, and makes our heart free from all sins, laws and mandates, etc. So to speak, for Luther christian man is a free servant. And he took Jesus as a practical model of it, because Jesus Christ is the perfect lord and at the same time the perfect servant. He also relates the christian liberty with faith, justification and good works, etc.

For John Calvin, even though his style of developing it is a little different from the one of Luther, it is true that he used a lot of main concepts which Luther did.

In the prescribed book of J. Calvin, we can find that Calvin was more systematic than Luther. But he also develops his main concept from justification, and relates it with law, freedom, conscience, enforcement of the law and the abuse of freedom, etc. In spite of some differences of their view, we can find a lot of similarities in their works. And both of them deduced the conception of christian liberty, they related it with our neighbor in the last parts of their works, so that we may not to offend our neighbor into temptation, and we may practice our liberty on the basis of loving our neighbor.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their view on christian liberty are in touch with one another in whole context, even though there still remains a little differences.

## 參 考 文 獻

### 1. 사 전

오병세 편, 신학사전, 서울 :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87.

Arndt W. F., and Gingrich F. 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1957.

Gesenius, Gesenius Hebrew-Chaldee Lexicon to the O. T., Baker Book House Co., 1979.

### 2. 한 서

김의환, 교회사, 서울 : 성광문화사, 1982.

지원용, 루터의 사상, 서울 : 컨콜디아사, 1982.

지원용, 종교개혁, 서울 : 컨콜디아사, 1980.

### 3. 역서

뵈클레, 프란츠, 성염 역, 기초윤리학, 경북왜관 : 분도출판사

뵈트너, 엘. 비., 김정덕 역, 칼빈주의 예정론, 서울 : 세종출판사, 1977.

칼빈, 김문제 역, 기독교 강요, 서울 : 성광문화사, 1977.

루터, 지원용 역, 크리스찬의 자유, 서울 : 컨콜디아사, 1983.

파아커, T. H. L., 김재준 역, 칼빈의 모습,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5.

빙그렌, 구스타프, 맹용길 역, 루터의 소명론, 서울 : 컨콜디아사, 1975.

### 4. 양서

Althaus, Paul,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1.

Althaus, Paul, The Ethics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2.

Amstrong, William Park, Calvin and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 Book House, 1980.
- Anderson, Charles S., the reformation.....then and now, Mineapolis, Minesota : Augusberg pub. co., 1966.
- Atkinson, James, The Great Light, Grand Rapids, Michigan : Wm. B. Eerdmans pub. co., 1968.
- Bainton, Roland H.,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ston : Beacon press, 1965.
- Bornkamm, Heinrich, Luther's World of Thought, st. Louis, Missouri : Concordia pub. House, 1965.
- Calvin, John, Inst. XIX, "Christian Liberty", ed.by John T. McNeill,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 Calvin, John,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Grand Rapids, Michigan : Wm. B. Eerdmans pub. co., 1948.
- Carnell Edward John, The Kingdom of Love and the Pride of Life, Grand Rapids, Michigan : Wm. B. Eerdmans pub. co., 1960.
- Chadwick, Owen,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Michigan : Wm. B. Eerdmans pub. co., 1964.
- Dooyeweerd, Herman, The Christian Idea of the State, Nutley, New Jewsey : Craig press, 1978.
- Douma, J., Christian Morals and Ethics, New Delhi : Ambassador press, n. d.
- Dowley, Eerdmans' Handbook to the History of Christianity, Grand Rapids, Michigan : Wm. B. Eerdmans pub. co., 1977.
- Haile, H. G., Luther,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 press, 1980.
- Kistemaker, Simon, Calvinism : Its History, Principles and Perspectives,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66.
- Küng, Hans, The Council, Reformation and Reunion, NY : Sheed and ward Lad., 1961.
- Kuyper, Abraham, Calvinism : Six Stone Foundation Lectures, Michigan : Wm. B. Ee-

- rdmans pub. co., 1931.
- Latourette, Kenneth Scott, A History of Christianity(Vol. 2). Reformation to the present, NY., London, SF. : Harper and Row, 1975.
- Lindsay, Thomas M., History of the Reformation(Vol.1), Edinburgh : T. and T. Clark, 1956.
- Luther, Works of Martin Luther(Vol.2), Theatise on Christian Liberty (Philadelphia Edition),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82.
- Luther, M., Three Treatises,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4.
- Luther, M., Luther's Works, Lectures on Galatians, st. Louis : Concordia pub. House, 1964.
- Machen, J., Gresham, The Christian View of Man, Hazell Watson :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5.
- McNeill, John T., Calvin : On God and political duty, Indianapolis : Bobbs-Merrill Education Pub., 1950.
- Meeter H. Henry,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alvinism, Michigan : Wm. B. Eerdmans pub. co., 1930.
- Moltman, Jürgen, Theology and Joy, London : SCM Press, 1973.
- Mosse, George L, The Reformation, Hinsdale, Illinois : The Dryden press, 1963.
- Nijenhuis, Ecclesia Reformata, Leiden : E. J. Brill, 1972.
- Oberman, H. A., Luther and the Dawn of the Modern Era, Leiden : E. J. Brill, 1974.
- O'connell, Marvin R., The Counter Reformation(1560-1610), NY : Harper and Row pub. House, 1974.
- Packer, J. I., Knowing Man, Westchester, Illinois : Cornerstone Book House, 1972.
- Partee, Charles, Calvin and classical philosophy, Leiden : E. J. Brill, 1977.
- Porter, J. M., Luther : selected political writings,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2.
- Potchefstroom Univ.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Calvinus Reformator, Potchefst-

- room Univ. press, 1982.
- Rupp, Ernest Gorden, Luther's Progress to the Diet of Worms, Chicago : Wilcox and Follett co., 1951.
- Rushdoony, Rousas John, Law and Liberty, Virginia : Thoburn Press, 1977.
- Rushdoony, Rousas John, the One and the Many, Fairfax, Virginia : Thoburn press, 1978.
-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Vol. VII.), Michigan : Wm. B. Eerdmans pub. co., 1984.
- Schwiebert, E. G., The Reformation from a New Perspective, st. Louis, Missouri : Concordia pub. House, 1950.
- Singer, C. Gregg, John Calvin : His Roots and Fruits, New Jersey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7.
- Spier, J. M.,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Nutley, New Jersey : Craig Press, 1976.
- Van der Walt, B. J., Anatomy of Reformation, Potchefstroom Univ., 1980.
-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Mighigan : Wm. B. Eerdmans pub. co., 1959.